

2016 UNGC COP 기술보증기금

도전하는  
기술기업의 Partner,  
기술금융의 Global Leader





2016 UNGC COP 기술보증기금

도전하는  
기술기업의 Partner,  
기술금융의 Global Leader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2016 UNGC COP

**04 CEO 인사말**

**06 1장 / 경제 동향**

- 08 제1절 세계경제
- 12 제2절 국내경제
- 15 제3절 향후 경제전망

**16 2장 / 중소·벤처기업 동향**

- 18 제1절 중소기업
- 19 제2절 벤처기업
- 21 제3절 이노비즈기업

**22 3장 / 기술보증기금 경영현황**

- 24 제1절 개요
- 26 제2절 일반현황
- 31 제3절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 31 1. 총괄
  - 34 2. 기술보증
  - 39 3. 기술평가
  - 51 4. 보증연계투자
  - 54 5. 기업지원
  - 58 6. 재기지원·부실채권회수
  - 61 7. 인재채용 및 인재개발
  - 63 8. 윤리경영

- 65 9. 고객만족
- 67 10. 인권경영
- 68 11. 리스크관리
- 69 12. 정보화업무
- 71 13. 사회공헌활동
- 74 14. 국제협력

**76 부 록**

- 78 1. 결산 재무제표
- 80 2. 상임이사/비상임이사
- 82 3. 운영위원
- 83 4. 주요일지
- 84 5. 영업점 현황

# CEO'S MESSAG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UNGC COP 2016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정책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국제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UNGC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을 지지합니다.”

세계은행은 2016년 2.4%에 성장에 그친 세계 경제가 생산·무역 회복에 힘입어 2017년에는 2.7%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도 글로벌 경기회복세 확산에 따른 수출 회복세와 투자 확대로 당초 전망치를 넘어서는 경기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나, 가계부채 문제, 미국의 금리인상, 기업 구조조정 등 성장을 저해할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바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점진적이고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기보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기업육성을 위해 ‘인더스트리 4.0 퍼스트보증’을 시행하는 등 미래 주력산업인 신성장 분야를 적극지원하고,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명실상부한 창업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 전년 계획 대비 1조원이 증가한 20조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중점지원 분야인 일자리창출, 기술창업, 신성장동력, R&D에 대한 보증공급을 전년 대비 1.5조원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기회를 제공하고자 ‘재창업 재기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식재산(IP) 가치를 평가하는 IP금융, 보증과 투자가 결합된 보증연계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기보는 업무절차 혁신을 통한 신속한 지원과 기업부담 완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국제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UNGC의 인권·노동·환경·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을 지지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보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코자 하니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이사장 김 규 옥



# Innovation

끊임없는 혁신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금융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 1 장 / 경 제 동 향

기보는 기술금융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지난 28년간 국내 기술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금융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지금 기보는 한국형 기술금융 제도를 해외에 전파하여 기술금융의 명가로서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 창조경제의 대표 주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제1절 | 세계경제

제2절 | 국내경제

제3절 | 향후 경제전망



# 01 세계경제

## 01

### 총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2016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 무엇보다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주요국들의 회복세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소비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유가와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투자와 수출이 부진해 1%대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중국도 공급과잉 억제 노력으로 투자가 둔화되고 글로벌 교역 둔화로 수출도 감소했다. 유로존 역시 경기부양책을 펼쳤음에도 정치·사회적 리스크 요인으로 회복세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일본은 정부 지출 증가로 겨우 플러스 성장은 유지했지만, 소비 부진 장기화가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및 경기 판단

구분	2015년	2016년 <sup>(e)</sup>	2017년 <sup>(e)</sup>	2017년 경기판단
세계경제성장률	3.2	3.1	3.4	회복세 유지
미국	2.6	1.7	2.1	경기 개선
중국	6.9	6.6	6.3	성장세 둔화
유로존	2.0	1.6	1.3	회복세 둔화
일본	0.5	0.5	0.5	부진 지속

주: 세계 경제 전망치는 IMF, 미국, 중국, 유로존, 일본 전망치는 IBK경제연구소,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6.10.)

## 02

### 글로벌 경제여건 전망

#### 세계경제

최근 글로벌 제조업 PMI 및 OECD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시 2016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및 인도, 아세안 등 일부 신흥국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브라질, 러시아 경제도 2017년 중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및 브렉시트 협상,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2017년 중 경기 개선, 국제유가 등 상품가격 상승 영향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 세계교역

세계교역은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자원수출국 등 그간 부진하였던 신흥국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세계 수입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2016년 11월)는 2016년 중 OECD국가(2016년 1.7%→2017년 2.0%)에 비해 비OECD국가(4.0% → 4.5%)의 성장세가 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보호무역 기조, 저조한 글로벌 투자,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 등이 세계교역의 탄력적인 회복을 제약하고 있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상품시장

국제유가는 감산이행 기대에 힘입어 당분간 현재의 배럴당 50달러 초·중반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예측기관별로 금년 수급여건 전망이 상반된 가운데 감산 이행 여부, 달러화 및 세일오일 증산 추이 등의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82년~2009년 중 17차례의 과거 감산사례를 보면 OPEC의 목표 대비 감산 이행률은 60%에 불과하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증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주요 기관의 국제유가 전망

구분	2016년	2017년 <sup>(e)</sup>		2018년 <sup>(e)</sup>
	4/4	상반기	하반기	연간
CERA ('16.12.16.)	50.1	53.4	55.4	57.2
OEF ('16.12.19.)		50.0	50.5	52.0
Deutsche Bank ('16.12.15.)		53.0	57.0	65.0
JP Morgan ('16.12.16.)		58.0	58.5	-

주: Brent유 기준, ( ) 내는 전망 일자, 단위: 달러/배럴, 자료: 각 기관, 한국은행

## 01. 세계경제

### 미국

미국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양호한 고용여건, 소비심리 등으로 민간소비가 견조한 가운데 유가 상승,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설비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은 상방 리스크로, 신정부의 정책 관련 불확실성,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유로지역

유로지역 경제는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고용시장 호조 등으로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업황 개선 등으로 투자도 증대될 전망이다. 브렉시트 투표 결과의 부정적 영향은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등으로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영국과 EU 간 향후 브렉시트 협상 과정, 금년도 네덜란드(2017년 3월), 프랑스 대선(2017년 4, 5월), 독일 총선(8~10월) 등 주요국의 선거 결과 등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일본

일본 경제는 공공투자, 민간소비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양호한 고용여건이 지속되면서 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정부는 총 28.1조엔 규모(재정지출 13.5조엔 포함)의 경제대책을 발표(2016년 8월)하였으며, 2017 회계연도 예산도 전년 대비 0.8% 증가한 97.5조엔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개선, 엔화 약세 등으로 생산과 수출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 등이 성장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일본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 중국

중국경제는 견조한 소비증가세 등에 힘입어 6%대 중반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중국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 목표를 '안정 속의 발전'으로 설정(중앙경제공작회의, 2016년 12월 16일)하고 이를 위해 재정정책은 성장을 지원하는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고 통화정책은 '안정·중립' 기조로 금융 안정에 보다 유의하면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 기업부채 과다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점에 대하여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 기타 신흥경제국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은 완만한 경제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부진에도 양호한 내수 경기가 성장을 이끌고 있다. 또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속적 증가, 그리고 안정적인 물가수준 등 기초여건도 건실해 성장 잠재력도 충분하다. 물론 대외리스크는 상존한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글로벌교역요건 악화 등이 아세안 지역 경제성장세를 둔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산유국도 유가상승 덕분에 미약하게나마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가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성장률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브라질·러시아 등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본유출이 확대될 수 있으며,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재정이 취약한 일부 국가는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주요 신흥국 경제지표

구분	경제성장률			GDP대비 경상수지			GDP대비 재정수지		
	2015년	2016 <sup>(e)</sup>	2017 <sup>(e)</sup>	2015년	2016 <sup>(e)</sup>	2017 <sup>(e)</sup>	2015년	2016 <sup>(e)</sup>	2017 <sup>(e)</sup>
사우디아라비아	3.5	1.2	2.0	△8.3	△6.6	△2.6	△16.0	△13.0	△9.5
이란	0.4	4.5	4.1	2.1	4.2	3.3	△1.7	△1.1	△1.0
UAE	4.0	2.3	2.5	3.3	1.1	3.2	△2.1	△3.9	△1.9
러시아	△3.7	△0.8	1.1	5.2	3.0	3.5	△3.5	△4.0	△1.5
브라질	△3.8	△3.3	0.5	△3.3	△0.8	△1.3	△10.3	△10.4	△9.1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6.10.)



# 02

## 국내경제

### 01 총괄

2016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7%를 기록했으며, 2015년 4/4분기에 0%에 재진입한 이후 4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 불안감으로 인한 고용여건 악화, 김영란법 시행, 일부 대기업 법정관리 여파, 예상을 뛰어넘는 수출 부진이 성장을 둔화의 주요 요인이 됐다. 특히, 9월과 10월 추경을 비롯한 두 차례의 경기부양마져 없었다면 2016년 경제성장률은 2%마저 쉽지 않았을 것이다.

#### 부문별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sup>(e)</sup>		
		상반기	하반기 <sup>(e)</sup>	연간 <sup>(e)</sup>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2.6	3.0	2.2	2.6	2.6	2.4	2.5
민간소비	2.2	2.7	2.5	2.6	2.4	2.1	2.2
설비투자	5.3	3.6	1.1	2.4	0.1	0.9	0.5
건설투자	3.9	10.3	9.6	9.9	5.6	4.1	4.8
수출	0.8	1.3	2.6	2.0	3.7	1.3	2.5
수입	3.2	2.6	1.3	1.9	0.5	1.3	0.9

주: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자료: IBK경제연구소, 한국은행

### 민간소비

2016년에는 정부의 소비활성화대책, 주택경기 호조, 폭염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소비는 소폭 회복됐지만 실질소득 감소, 평균소비성향 하락으로 소비가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7년에는 신규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가전·가구 등 교체수요, 대선과정에서의 경기부양 정책 기대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산업구조조정 확대에 의한 고용불안, 역전세난 우려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가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중 민간소비는 지난해(2.4%)보다 낮은 1.9% 증가할 전망이다.

#### 민간소비 전망

2016년			2017년 <sup>(e)</sup>			2018년 <sup>(e)</sup>
상반기	하반기 <sup>(e)</sup>	연간 <sup>(e)</su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2.7	2.1	2.4	1.9	1.9	1.9	2.3

주: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자료: 한국은행

### 설비투자

주력업종의 수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다. 평균가동률도 금융위기 수준보다 낮아져 설비투자를 확대할 유인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2017년에도 경기 둔화, 기업 투자 유인 감소, 은행의 보수적 대출태도 등으로 인해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구조조정 압력으로 설비확충보다는 차입금 상환 등 건전성 개선과 사내유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중 설비투자는 IT업종을 중심으로 2.5%, 2018년에는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설비투자 전망

2016년			2017년 <sup>(e)</sup>			2018년 <sup>(e)</sup>
상반기	하반기 <sup>(e)</sup>	연간 <sup>(e)</su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3.6	△1.5	△2.6	3.0	2.0	2.5	3.6

주: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자료: 한국은행

### 건설투자

지난 3년간 아파트 분양시장 호조와 저금리 등으로 건설투자가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2017년에도 기본양된 주거용 건물 위주로 건설투자는 양호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2017년 정부예산 중 SOC 분야가 9년 내 최저(21조 8,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됨에 따라 토목투자는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017년 중 건설투자 증가율은 4.3%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 건설투자 전망

2016년			2017년 <sup>(e)</sup>			2018년 <sup>(e)</sup>
상반기	하반기 <sup>(e)</sup>	연간 <sup>(e)</su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10.3	11.5	10.9	5.9	3.0	4.3	0.1

주: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자료: 한국은행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 반도체 가격 상승, 생활가전 고급화 등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주요 IT 기업의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R&D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도 19.5조원으로 2016년(19.1조원) 대비 2.2% 증가하였다. 한편 스마트카 운영체제,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SW개발에 대한 기업투자가 확충될 전망이다. 자동차부문의 경우 스마트카 전자장비와 커넥티드카 운영체제 SW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2017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약 2.9%, 2018년에는 3.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망

2016년			2017년 <sup>(e)</sup>			2018년 <sup>(e)</sup>
상반기	하반기 <sup>(e)</sup>	연간 <sup>(e)</su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1.9	2.9	2.4	2.7	3.1	2.9	3.2

주: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자료: 한국은행

## 02.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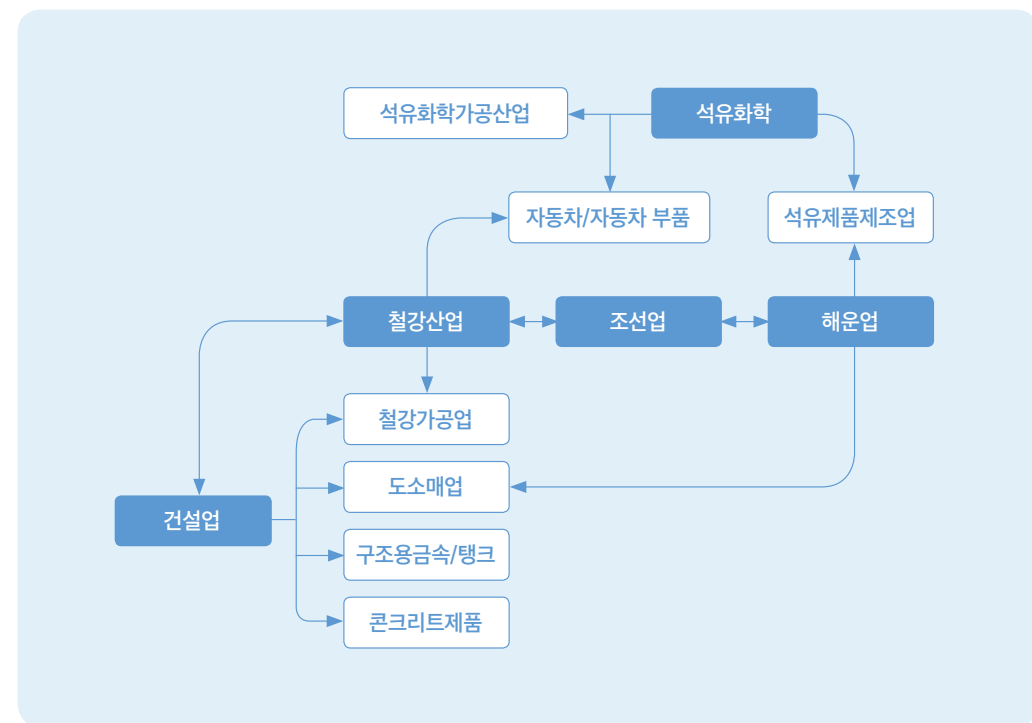
### 수출

글로벌 교역 둔화, 유가하락, 중국 및 신흥국 경기 둔화, 2016년 들어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등이 우리나라 수출에 악영향을 미쳐 사상 최초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은 수출증가율이 기저효과로 인해 플러스로 전환되겠지만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대기업 경쟁력 회복 요원, 주력업종의 부진 등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부진에서 탈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이슈 - 2017년 3대 우려요인

첫째는 가계부채 문제다. 가계부채 총량이 크고 증가속도도 빠른 상황에서 시장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산업구조조정이다. 5대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나 잘 되더라도 충격은 불가피하다. 일부 대기업에서 부도가 발생하면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커 지역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다. 수출 비중이 50%에 가까운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구조조정 영향산업



자료: IBK경제연구소

## 03 향후 경제전망

#### 1)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글로벌 통화정책의 탈 공조화 현상을 일컫는다. 미국은 기준 금리 인상, 유로존과 일본은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은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미국은 주춤했던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성장률 2%대에 다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구조개혁으로 3년 연속 6%대 성장률이 지속될 전망이다. 유로존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회복세의 둔화가 점쳐진다. 일본도 정부가 재정·금융정책을 총동원했지만 지지부진한 성장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역사상 유례없이 많은 돈을 풀었던 미국의 유동성 회수, 과거보다 강도 높은 중국의 구조개혁,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본격화된 유로존과 일본, 그리고 그레이트 다이버전스(Great Divergence)<sup>1)</sup> 장기화 등 가본 적 없는 길을 걷는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한편 2017년 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주요국의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3.3% 수준, 2018년은 3.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교역 신장률은 2.9% 수준, 원유 도입단가(기간 평균)는 배럴당 51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중 국내경제는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의 개선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018년에도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의 개선이 이어지면서 2.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에 대한 지출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가 낮아지고 수출 기여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방리스크 요인으로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일부 업종의 업황 개선에 따른 기업수익 및 설비투자 증가,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 등이 있고, 하방리스크 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세계교역 신장세 약화,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가계부채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경제심리 회복 지연 등이 있다.

#### 성장에 따른 지출부문별 기여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sup>(e)</sup>	2017년 <sup>(e)</sup>
GDP	3.3	2.6	2.7	2.5
수출	1.4	0.2	0.4	0.8
내수	1.9	2.4	2.3	1.7

단위: %, %p, 자료: 한국은행



# Challenge

도전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이 함께 합니다

## 2 장 / 중 소 · 벤 처 기 업 동 향

2012년 이후 저성장 장기화 우려와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 등으로 인한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 물가안정 등을 바탕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금은 벤처·이노비즈·기술창업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은 물론 기술평가보증의 지속적인 확대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발굴·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여 종합기술금융 선도기관으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1절 | 중소기업

제2절 | 벤처기업

제3절 | 이노비즈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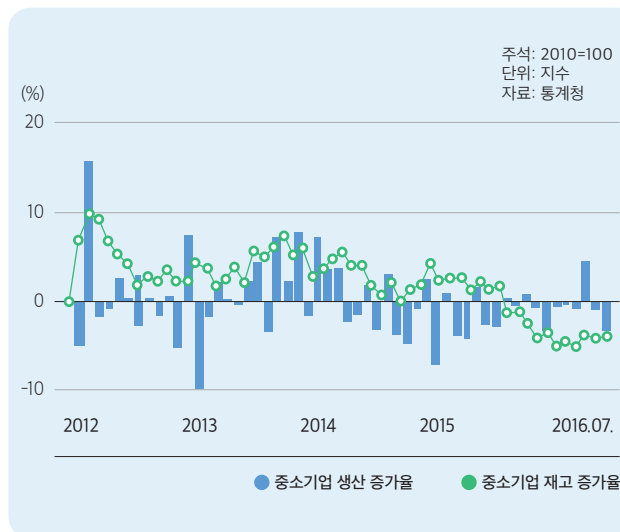
# 01 중소기업

2016년 중소기업 생산은 내수회복 지연과 수출둔화 등으로 부진했다. 소비위축과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생산에서부터 출하, 재고까지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2015년 중소기업 생산이 전년 대비 1.2% 감소한 데 이어 2016년(1~7월) 역시 -3.2%를 기록했다. 출하량도 2016년 -3.4%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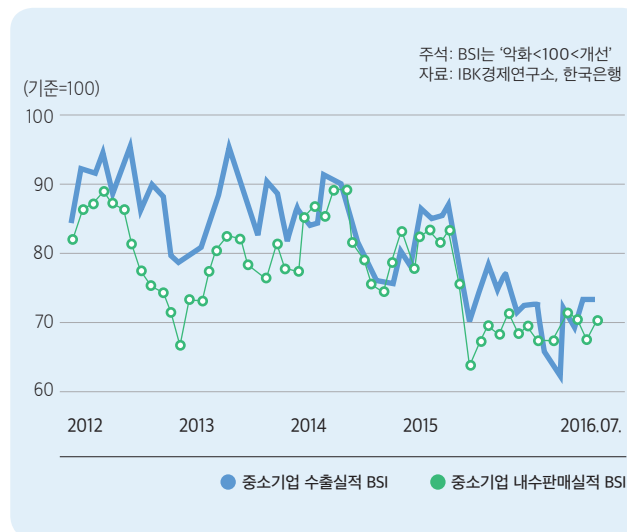
설비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다.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약화되고 생산감소마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설비가동률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설비투자 유인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가동률 BSI(Business Survey Index, 기준=100)는 2013년 85에서 2016년 상반기 76까지 떨어졌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2016년에만 -13.2%를 기록해 -5.9%이던 2014년보다 2배 이상 떨어졌다. 설비투자가 부진한 업종을 보면 철강, 기계장비, 조선 순으로 설비투자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다. 중기대출의 증가가 둔화세고, 영업실적도 저조하다. 구조조정은 기업생산을 감소시키고 인력감축을 일으켜 소비여력까지 감소시키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우량 중소기업에만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상승으로 은행은 대출 태도를 더 신중하게 유지할 것이다. 정부가 창업·기술기업 등에 지원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같은 업종에서도 우량 중소기업으로만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생산/재고



중소기업 수출 및 내수판매실적 BSI



# 02 벤처기업

정부는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고 자금, 기술, 인력, 입지 등 유·무형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1998년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1년 7월 처음으로 1만개를 돌파하였으며, 2004년 4월 정부의 벤처 활성화 정책과 2006년 6월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던 벤처기업 확인 기능을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민간으로 이양하는 등 전면적인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2008년에는 벤처기업 수가 1만 5천개로 증가하였다.

2010년 4월에는 재무상태가 양호한 우량 중소기업은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벤처확인을 위해서 기술평가보증증을 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보증금액이 아닌 기술평가보증가능결정금액으로도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벤처기업 수가 2010년 5월 2만개를 돌파한 이후 2016년 말에는 33,360개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이은 유로존 재정위기, 선진국 경기부진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수가 계속 증가한 것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평가보증 위주의 보증지원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향상과 정책자금 등 정부지원정책 수혜 등을 위한 인증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벤처기업 추이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업체 수(개)	15,401	18,893	24,645	26,148	28,193	29,135	29,910	31,260	33,360

자료: 벤처인

벤처기업은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70.2%가 집중되어 있고, 그 외 S/W업에 16.4%가 분포되어 있다.

벤처기업의 업종별 분포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기타	계
업체 수(개) (구성비)	23,426 (70.2%)	5,462 (16.4%)	369 (1.1%)	2,824 (8.5%)	33,360 (100%)

자료: 벤처인, '16년 말 기준

또한, 지역별로는 벤처기업의 53.3%가 서울·경인지역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기술력 우수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여전한함을 보여주고 있다.



## 02. 벤처기업

### 벤처기업의 지역별 분포

구분	경기	서울	대구·경북	부산·울산	대전·충남	경남	인천	광주·전남	기타	계
업체 수(개) (구성비)	10,243 (30.7%)	7,536 (22.6%)	3,228 (9.7%)	2,650 (7.9%)	2,401 (7.2%)	1,791 (5.4%)	1,510 (4.5%)	1,451 (4.3%)	2,550 (7.6%)	33,360 (100%)

자료: 벤처인, '16년 말 기준

벤처기업은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벤처천억기업 수가 2016년(2015년 결산 기준) 474개로 2015년 대비 3.0%(14개사) 증가하는 등 벤처산업의 성장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연도별 벤처천억기업 추이

구분 (결산연도)	'08년 ('07년)	'09년 ('08년)	'10년 ('09년)	'11년 ('10년)	'12년 ('11년)	'13년 ('12년)	'14년 ('13년)	'15년 ('14년)	'16년 ('15년)
업체 수(개)	152	202	242	315	381	416	454	460	474

2016년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한 벤처천억기업 474개 중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08개 기업에 총 2조 5,427억원의 신규보증 지원이 이루어져 이 중 333개사(81.6%)는 보증을 졸업했고, 75개사(18.4%)는 보증잔액 1,653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 벤처천억기업 보증지원 현황

구분	보증졸업기업		보증거래기업		합계	
	업체 수	신규공급	업체 수	신규공급	업체 수	신규공급
보증현황 (구성비)	333 (81.6%)	19,666 (77.3%)	75 (18.4%)	5,762 (22.7%)	408 (100%)	25,427 (100%)

단위: 개, 억원

기술보증기금 보증거래기업 중 기업공개된 기업은 211개 업체로서 최초 보증 취급 당시 32개 업체, 보증거래기간 중 139개 업체, 보증졸업 이후 40개사가 IPO에 성공하여 보증이용기간 중 성장·성숙 과정을 거쳐 IPO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도 기술보증기금은 국가 미래성장동력인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기술금융 지원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 03 이노비즈기업

21세기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개방화 진전에 따른 국제적 기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견인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2001년부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노비즈 인증 신청기업이 증가하여 2016년 말 현재 17,708개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거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인증을 받았다.

### 연도별 이노비즈기업 선정 추이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업체 수(개)	14,626	15,939	16,243	16,944	17,298	17,080	16,878	17,472	17,708

자료: 중소기업청

### 업종별 분포

구분	기계금속	전기전자	S/W	정보통신	화학	기타	계
업체 수(개) (구성비)	4,737 (26.8%)	3,343 (18.9%)	1,291 (7.3%)	1,083 (6.1%)	1,230 (6.9%)	6,024 (34.0%)	17,708 (100%)

자료: 중소기업청, '16년 말 기준

### 지역별 분포

구분	경기	서울	대구·경북	부산·울산	대전·충남	경남	인천	광주·전남	기타	계
업체 수(개) (구성비)	5,901 (33.3%)	3,158 (17.8%)	1,750 (9.9%)	1,224 (6.9%)	1,209 (6.8%)	1,282 (7.2%)	1,010 (5.7%)	795 (4.5%)	1,379 (7.8%)	17,708 (100%)

자료: 중소기업청, '16년 말 기준

# Passion

언제 어디서나 더 **뜨거운 열정**으로  
고객의 밝은 내일을 **약속**합니다

## 3 장 / 기 술 보 증 기 금 경 영 현 황

기보는 탄탄한 기술 평가 인력과 시스템으로 기술 금융을 선도합니다. 기보는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기술의 진보와 융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술평가조직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이를 통해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축적되지 않아 제도 금융권에서 소외된 기술창업 중소기업 발굴에도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보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한층 넓히고 기업인들이 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01 개요

## 01 역할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1989년 설립 이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술중소기업에 약 300조원의 기술보증을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기술금융 활성화를 선도하였으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창업기업,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형기업의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평가와 연계한 투자, 기술·경영지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술금융 종합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인 기술에 대한 미래가치 중심의 기술평가보증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술창업기업 등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보증지원 역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R&D 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기술의 수요/공급 매칭시스템 수립, 공공기관 유일의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주도적 참여 등의 선제적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촉진과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기보는 창업·혁신·기술기업의 중점 지원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보의 기술평가정보가 공공 및 민간부문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창조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핵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04 비전 및 전략



## 02 설립목적

1.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2.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함.<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 03 주요 연혁

- 1989. 04.** 기술보증기금 설립('86.12월 기금설치)
- 1997. 03.**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기술평가센터 개소
- 1999. 02.** 기술평가보증제도 시행
- 2005. 07.** 新기술평가시스템(KTRS) 개발
- 2006. 06.** 벤처기업 확인기관 선정
- 2007. 01.** 기술평가보증으로 보증 일원화(재무중심 심사 폐지)
- 2011. 05.** 부산 문현국제금융단지 본점 입주
- 2012. 06.** 보증연계투자 업무 법제화
- 2015. 01.**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체계 구축(기술융합센터, KTMS 운용)
- 2016. 09.** 법상명칭 변경(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2016. 12.** 누적보증공급액 300조원, 보증규모 21.2조원, 거래기업 수 7만1천개 돌파

# 02

## 일반현황

### 01 기본재산과 운용배수

기보는 기술보증과 기술평가를 통하여 신기술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기술금융 전문기관으로, 기본재산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이라는 경제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재원으로써 자본금인 동시에 대위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지불준비금의 성격이며, 정부,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술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기보에 출연('14년 500억원, '15년 400억원, '16년 800억원 전입)하는 것으로, 기술·창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기술보증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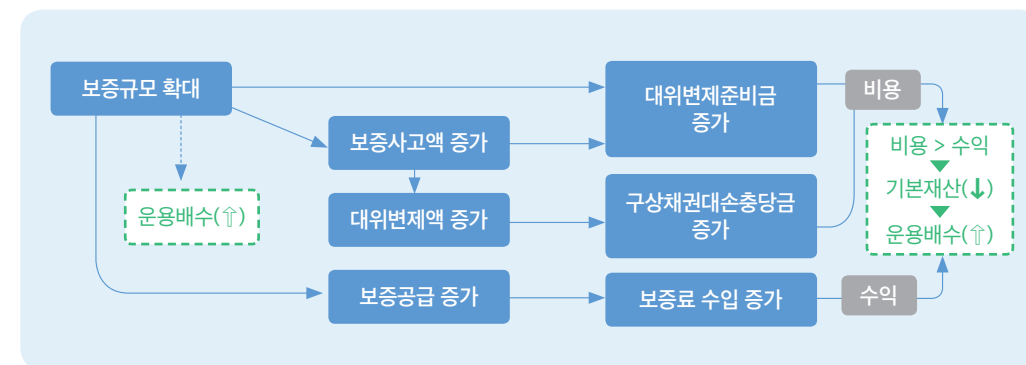
금융기관 출연금은 금융기관이 기술보증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정보 및 신용도 파악에 소요되는 취급비용을 낮춰주고, 자금공급에 수반되는 위험을 없애주어 대손충당금 비용을 절감하게 됨에 따라 납부하는 보증비용의 대가적 성격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준조세적 성격의 부담금이다. 금융기관은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연대상 융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의 연율 1천분의 1.35±0.02(차등요율),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분기중 평균잔액의 연율 1천분의 3을 출연하고 있으며, 별도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등은 특별출연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기보의 기본재산은 보증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보증공급 여력을 유지하고 채권자의 대위변제 청구에 대응하는 공신력 확보 등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에 의해 조성되는 기본재산 및 보증료, 손해금, 예치금의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된 이익금은 먼저 보증채무의 이행과 기보의 운영상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고, 여유금은 금융회사 예치,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자금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주식(출자증권 포함), 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기타 기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술보증기금법 제44조>

2016년도는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따른 특별출연금 424억원 확보 등을 통한 수입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면제 확대에 따른 구상채권회수 감소, 지속적인 이자율 감소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전년 대비 사고증가에 따른 대위변제 증가, 전년 대비 보증잔액 증가(5천억원) 등에 따른 대위변제비용(구상채권상각비, 대위변제준비비) 증가의 원인으로 기본재산은 전년 말 대비 928억원 감소한 22,023억원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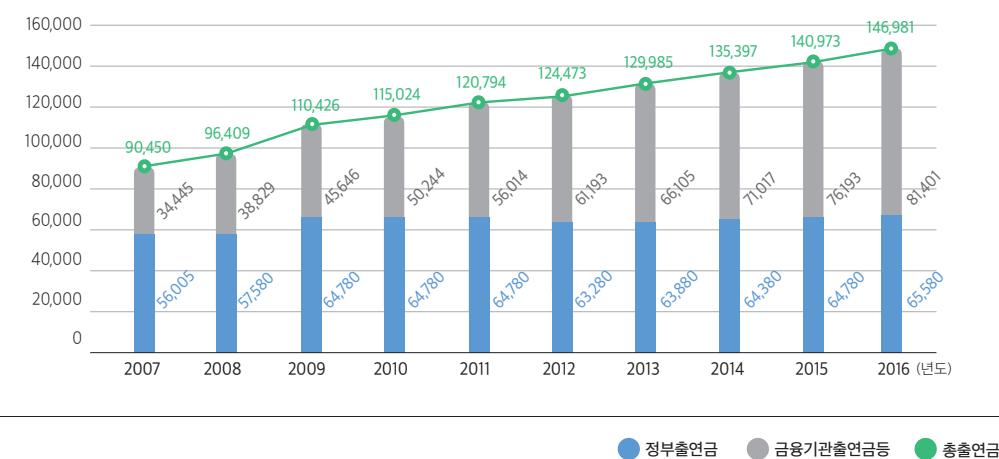
운용배수는 일정시점에서의 기술보증규모를 기본재산으로 나누어 산출된 값(배)으로 대위변제 청구에 즉시 대응하는 지급능력과 정부정책 및 보증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보증공급여력 등을 가늠하는 지표이며, 보증규모, 사고율 및 대위변제,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금 증감 등에 따라 변동된다. 또한 운용배수는 보증제도의 최대장점인 승수효과를 반영함과 동시에 보증운용의 한도를 지정함으로써 보증기관의 건전성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9.6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보증규모 증가에 따른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변화



#### 최근 10년간 출연금 누계액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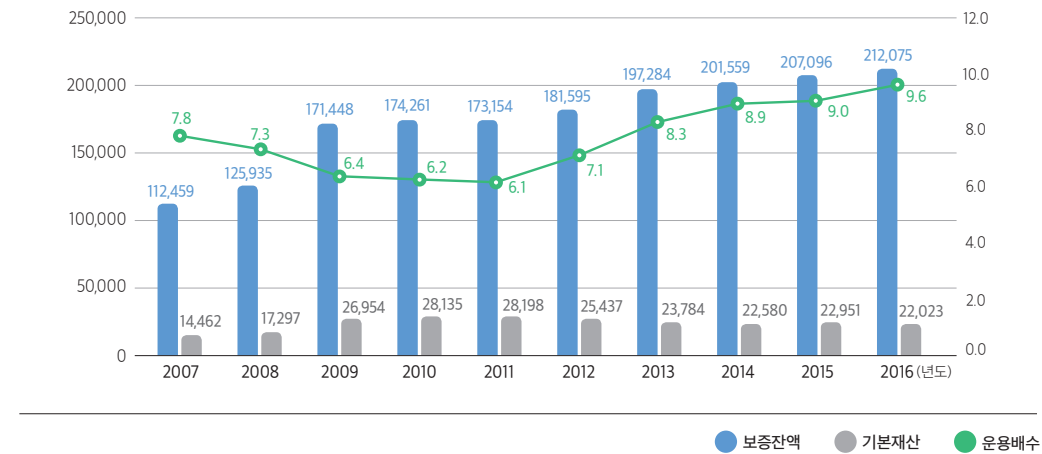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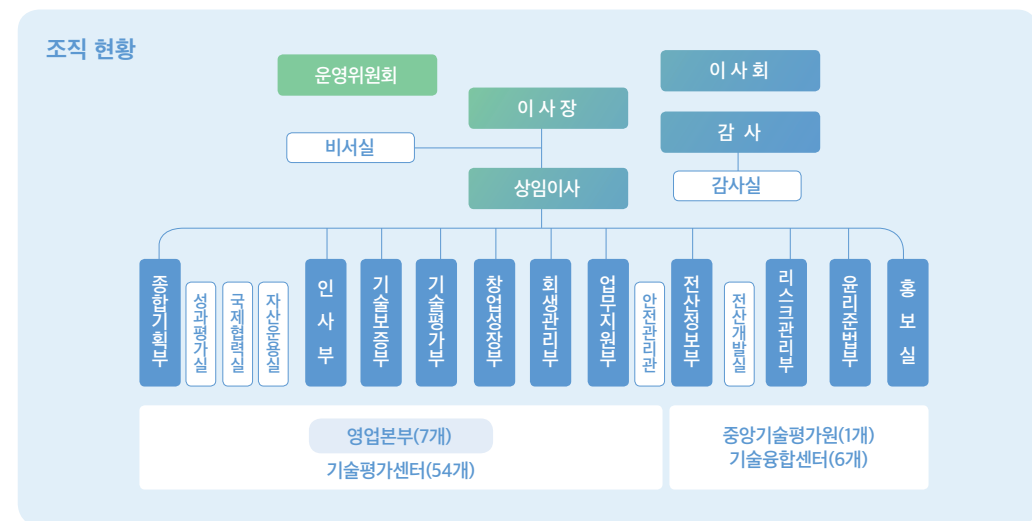
## 02. 일반현황

최근 10년간 주요 경영지표

단위: 억원, 배



본부부서는 핵심업무에 대한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평가업무와 기술이전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토록 일부 기능을 조정하였으며, 영업조직은 기술금융 현장 확산을 위하여 충청호남지역 영업본부를 충청영업본부와 호남영업본부로 분할하고, 경기·광주기술융합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6년 말 현재 기보의 조직은 본부(10부 2실) 및 영업점(중앙기술평가원 1개, 기술융합센터 6개, 영업본부 7개, 지점 54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임원 7명, 별정직 104명 등을 포함하여 총 1,15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원 현황

구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이하	별정직	계
현원	7	21	83	230	446	265	104	1,156

단위: 명

03  
주요업무 등

기보의 주요업무는 핵심업무인 기술보증, 기술평가, 보증연계투자, 구상권관리 업무와 부수업무인 경영지도 및 기업지도, 기술혁신지원 업무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업무

구분	내용							
핵심업무	기술보증	<p>▶ 신기술사업자 등 기술중소기업이 창업, R&amp;D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등의 과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p> <p>* 비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일반보증 신규지원 중단('04.8월)</p>						
		<table><tr><td>기술창업 보증</td><td>설립 후 5년 미만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td></tr><tr><td>기술혁신형 보증</td><td>벤처·이노비즈기업 등 우수기술보유기업, 녹색,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미래성장유망산업(6T) 영위 기업 등에 대한 보증</td></tr><tr><td>기술평가 보증</td><td>기업이 보유한 무형의 기술·지식 등에 대한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보증</td></tr></table>	기술창업 보증	설립 후 5년 미만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기술혁신형 보증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우수기술보유기업, 녹색,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미래성장유망산업(6T) 영위 기업 등에 대한 보증	기술평가 보증	기업이 보유한 무형의 기술·지식 등에 대한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보증
		기술창업 보증	설립 후 5년 미만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기술혁신형 보증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우수기술보유기업, 녹색,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미래성장유망산업(6T) 영위 기업 등에 대한 보증					
	기술평가 보증	기업이 보유한 무형의 기술·지식 등에 대한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보증						
기술평가	<p>▶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투·융자 등 다양한 목적의 기술금융 지원 수단으로 활용</p>							
	<table><tr><td>기술가치 평가</td><td>당해 기술에 의해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가치를 평가</td></tr><tr><td>기술사업 타당성 평가</td><td>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현 기술사업 투자를 확대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기술성·사업타당성을 평가</td></tr><tr><td>종합기술 평가</td><td>기업이 보유한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그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td></tr></table>	기술가치 평가	당해 기술에 의해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가치를 평가	기술사업 타당성 평가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현 기술사업 투자를 확대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기술성·사업타당성을 평가	종합기술 평가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그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기술가치 평가	당해 기술에 의해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가치를 평가						
기술사업 타당성 평가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현 기술사업 투자를 확대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기술성·사업타당성을 평가							
종합기술 평가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그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보증연계 투자	<p>▶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과 연계한 직접금융 지원</p> <p>- 주식인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p>							
부수업무	구상권 관리	<p>▶ 보증부실발생시점부터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구상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계약상의 권리행사 및 관리</p> <p>- 채권보전, 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 진행 및 임의상환 유도 등</p> <p>- 채권회수 중심에서 성실한 실패의 신용회복과 재창업 지원으로 범위 확대</p>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p>▶ 기술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지원</p> <p>- 경영 및 기술진단, 기술자문, 창업교육, 창업강좌 및 연수, 판로개척, 멘토링제도, 기업구조 조정 지원 및 M&amp;A 등</p>						
	기술혁신 지원	<p>▶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 선정</p> <p>▶ 녹색기술 및 녹색기업 인증</p>						

## 02. 일반현황

기보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기술혁신선도형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증지원하며, 특히 벤처·이노비즈기업, 기술창업기업,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우수기술 보유기업 등을 기보의 핵심고객으로 설정하여 기술금융을 우대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술창업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R&D활성화를 중점지원부문으로 설정하여 부문별 목표(Quota)를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통해 이들 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있다.



핵심 고객

- 전통적인 중소기업과 달리 고위험과 고수익성이 수반되는 **벤처기업**
-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이노비즈기업**
-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술창업기업**
- 우수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R&D기업**
- 녹색성장산업, 지식·문화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또는 **미래성장 유망업종(6T)**을 영위하는 우수기술 보유기업



벤처기업

-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유형
  -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
  - 연구개발기업
  - 벤처투자기업



이노비즈 기업

-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이노비즈기업 요건
  - 설립 후 3년 이상으로 기술혁신시스템 평점이 700점 이상이고 기술 사업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 03

##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 01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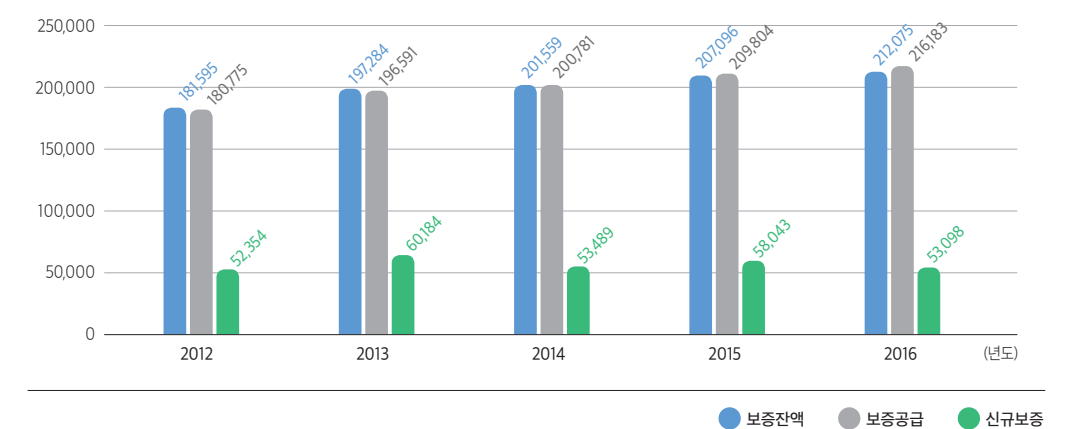
2016년 세계 경제는 신흥시장의 성장세 약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경제는 내수 및 수출부진으로 저성장 기조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기보는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금융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특히, 한정된 보증재원으로 기술창업,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부문을 집중 지원하였고, 기술평가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TCB 등 기술평가수요 창출 및 KSP사업의 참여를 통한 기술평가사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등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구상권 회수활동을 전개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하였다.

### 가. 기술보증

기보는 보증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보증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한계기업, 장기·고액보증기업 등의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기술창업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2016년도의 총 보증 규모는 전년도 대비 약 5천억원 증가한 21.2조원을 기록하였다.

기술보증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보증잔액	181,595	197,284	201,559	207,096	212,075
보증공급	180,775	196,591	200,781	209,804	216,183
신규보증	52,354	60,184	53,489	58,043	53,098



## 03.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또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술창업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R&D활성화를 3대 중점지원 분야로 지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보증공급 목표를 설정하여 집중 지원하여 기술기업의 자금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대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보증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획	실적
기술창업기업	91,928	103,333	88,000	104,666
신성장동력산업	61,046	70,812	57,000	66,580
R&D활성화	29,515	34,257	38,000	41,937

단위: 억원

#### 기술창업기업

창업 후 5년 이내인 신기술사업자

#### 신성장동력산업

정부확정 3대 분야 17개 산업의 대표품목을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R&D활성화

R&D를 개발-사업화준비-사업화단계로 세분화하여 신청기술 및 자금에 대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 나. 기술평가

기술평가란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평가활동으로, 기보는 1997년 3월 최초로 기술평가를 시행한 이후 매년 평가실적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까지 총 562,361건의 기술평가를 수행하였고, 기술평가료 누적 수입금액은 3,033억원에 달하고 있다.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은 미래가치 중심의 자금지원,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평가, 개발기술의 사업화 타당성 평가, 무형자산의 가치 산정 등에 주로 활용되어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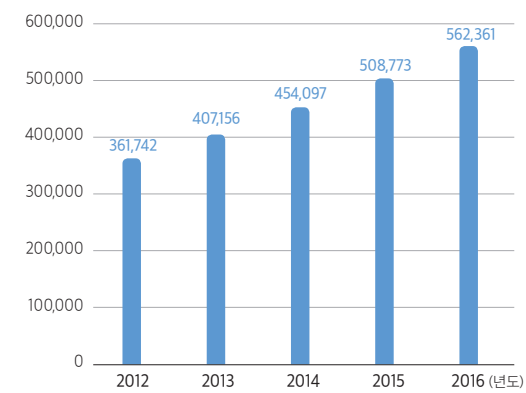
### 기보 기술평가 시스템의 활용범위

미래가치 중심의 자금지원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평가	개발기술의 사업화 타당성 평가	특허 등 무형자산 가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평가보증</li> <li>· 기술기반 신용대출</li> <li>· 보증연계투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확인</li> <li>· 이노비즈 인증</li> <li>· 녹색기술 인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 지원 평가</li> <li>· R&amp;D 경제성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이전 및 M&amp;A</li> <li>· 현물출자</li> <li>· 특허권 담보설정</li> </ul>

### 기술평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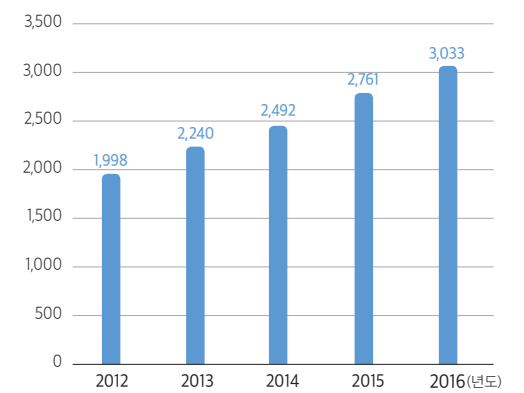
#### 기술평가건수(누계)

단위: 건



#### 기술평가료(누계)

단위: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술평가 건수	45,702	45,414	46,941	54,676	53,588
누계	361,742	407,156	454,097	508,773	562,361
기술평가료	283	242	252	269	272
누계	1,998	2,240	2,492	2,761	3,033

### 다. 사고 및 구상권 관리

보증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사후관리와 구조개선 및 실패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증자산의 부실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고율은 점차 하향 안정화되어 2016년 사고율은 4.4%를 기록하였다.

### 사고순증금액 및 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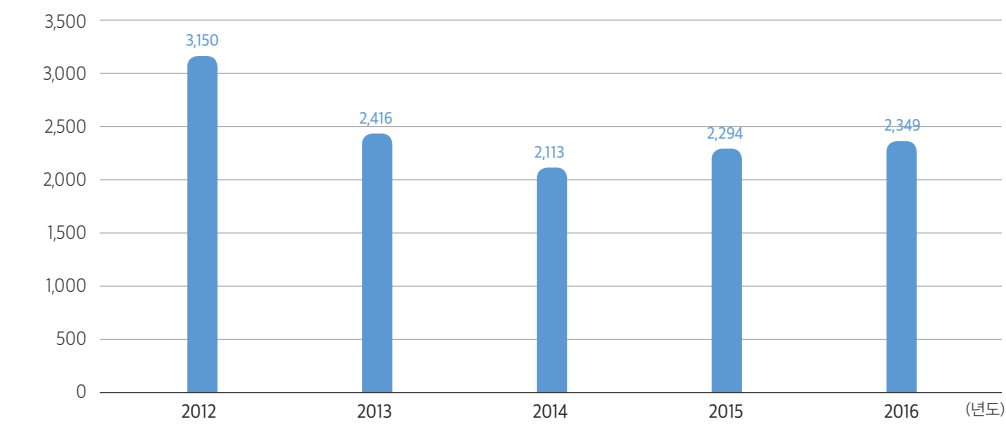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사고순증금액	6,050	7,679	7,420	8,184	8,715	9,026	7,551	8,802	8,457	9,325
사고율	5.4	6.1	4.3	4.7	5.0	5.0	4.0	4.4	4.1	4.4

단위: 억원, %

정부의 「창업-회수-재도전」의 금융 혁신대책을 반영하여 실패예방과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파산신청 등 채무면책 증가, 연대보증인 축소 등으로 구상권 회수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구상권 회수자원 발굴노력 강화, 회수가능성 위주 채무자별 차별화전략 및 공공기관 보유 정보활용의 정례화 등을 시행하고, 다양한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하여 구상권 회수의 극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장기미 회수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상각채권은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여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03.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연도별 구상권 회수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구상채권 잔액	19,641	18,594	19,076	19,719	20,762
구상권 회수	3,150	2,416	2,113	2,294	2,349

단위: 억원

### 가. 기술보증지원

#### 총보증지원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기술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재도약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보는 기술금융 전문 공적보증기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기술금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였다.

기술금융을 통해 중점지원분야인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창업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면서 지원 타당성이 높은 기업 위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6년도에 총 21조 6,183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였으며, 보증규모는 21조 2,0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979억원 확대되었다.

특히,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기업,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산업,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중소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여, 총 보증공급 대비 비중이 95.4%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간접시장에 편중된 중소기업 대출을 직접금융시장으로 확대한 우수기술 유동화보증 또한 2,562억원 규모로 발행하였다.

#### 기술·창업기업 등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체계 강화

기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기술·창업기업에 보증 지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신규보증 규모가 증가하였다. 특히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연도별 보증지원 실적

구분	2014	비중	2015	비중	2016	비중
총보증공급	200,781	100	209,804	100	216,183	100
기술혁신기업	186,756	93.0	200,447	95.5	206,297	95.4
벤처기업	111,718	55.6	119,368	56.9	128,306	59.4
이노비즈기업	70,867	35.3	67,359	32.1	69,635	32.2
창업기업	91,928	45.8	103,333	49.3	104,666	48.4
기술평가보증	188,832	94.0	202,802	96.7	208,794	96.6
지식문화산업	31,519	15.7	34,190	16.3	36,304	16.8
일자리창출기업	41,827	20.8	49,876	23.8	49,886	23.1
신성장동력산업	61,046	30.4	70,812	33.8	66,580	30.8
유동화회사보증	4,749	2.4	1,169	0.6	2,562	1.2
총보증잔액	201,559	-	207,096	-	212,075	-

단위: 억원, %

#### ● 기술혁신기업 보증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2016년도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20조 6,297억원으로 2015년 20조 447억원 대비 5,850억원 증가하였고, 총보증공급 대비 지원비중도 95.4%로 기술혁신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 창업기업 보증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창업 분위기 확산 등으로 국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신기술사업자로서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및 보증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2014년에는 9조 1,928억원, 2015년에는 10조 3,333억원, 2016년에는 10조 4,666억원을 지원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 기술평가보증

기술금융의 핵심기관으로서 기보는 기술혁신기업 금융지원에 최적화된 기술평가시스템을 확고하게 구축하여,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으로 전년도 20조 2,802억원(96.7%) 대비 5,992억원 증가한 20조 8,794억원(96.6%)을 지원하는 등 기술평가 중심의 기술금융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 03.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중점지원 분야에 선택과 집중

정부정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와 금융지원이 가능한 기보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술금융 지원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4대 핵심분야(우수기술기업·녹색성장기업·수출중소기업·벤처창업기업) 및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고위험·신성장 분야(성장동력확충 분야)를 중점지원 분야로 선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술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4대 핵심분야 보증지원

핵심분야	우수기술기업	녹색성장기업	수출중소기업	벤처창업기업
2015년	7.7	3.5	3.0	5.5
2016년	8.4	3.4	3.1	5.8

단위: 조원

### 나. 기술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분위기 조성

#### 일자리 창출기업·고용창출보증 지원 확대

기업이 성장하면서 고용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창출기업’을 선정하여 심사완화, 보증료 우대 등을 통해 2016년 4조 9,886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고, 실제 고용 확대기업이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의 만기 도래 시 재선정 요건을 강화하여 지원제도의 내실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데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한도 우대보증」을 통해 2016년 3,186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다.

####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창업보증 지원 확대

미래성장 기반 조성 및 고용 없는 성장 극복을 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술창업기업 발굴·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창업유형에 따라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챌린저창업,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창업 등 4대 창업육성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창업성장 보증」을 통해 7,535개 창업기업에 1조 9,703억원을 지원하였고, 소액 창업기업 위주로 기술보증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초기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매출액 없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창업보증 지원제도를 통해 총 9,733개 창업기업에 2조 6,854억원(전체 신규보증 5조 3,098억원의 50.6%)을 지원하는 등 미래성장 가능성 위주의 기술 평가로 기술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창업분위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도전적 창업을 위한 창업안전망 구축

창업 활성화와 경제활력 유지를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여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겸 실제경영자에 한하여 연대보증 입보하도록 하였고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 공식적 실

제경영자 1인만 입보하도록 하는 등 연대보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다. 이러한 개선 노력으로 신규 보증의 평균 연대보증인 수는 계속 감소(2016년 개인기업 0.06명, 법인기업 0.76명)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연대보증인 면제를 기술력이 우수(기술사업평가등급 AAA~A)한 비창업기업에도 적용하여 연대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였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과 실패에 대한 부담감 완화를 통한 도전적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신창업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창업 후 5년 이내 창업기업의 연대보증 면제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대보증 면제 신규 지원금액은 16년 8,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22억원(69.4%) 증가하였으며, 연대보증 면제 기업체 수는 2,756개 기업으로 전년 대비 2,235개(428%) 증가하였다. 또한 17개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연대보증 면제 기조를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도전적 창업문화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법적 번재책임 소멸·완료 채무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요소를 개선하고 구상채무 면제 완료기업에 대한 보증은 일반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등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여 창조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도모하고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신규보증의 평균 연대보증인 수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개인기업	0.17	0.09	0.06	0.05	0.06
법인기업	1.14	1.07	1.03	1.02	0.76

단위: 명

#### 대학 내 우수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대학이 개발한 우수기술 사업화를 통한 “Made in Korea” 신화 재현, 新 경제 성장동력 창출과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쏙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기보는 개방 혁신형 플랫폼인 U-Tech 밸리를 구축하고, 금융기관 최초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포항공대 등 5개 대학과 U-Tech 밸리 구축 협약을 체결(‘16.12월)하여 대학의 우수 기술인력의 활발한 창업과 성공기업으로의 도약을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수 연구성과를 보유한 대학 내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준비, 창업, 도약 등 성장단계에 따라 금융·비금융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 창업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tart-Up 기업에게는 창업자금으로 최대 30억원 사전한도 부여와 실패부담 완화를 위한 연대보증 면제 지원, Take-Off 기업은 보증연계 투자 우선추천, 마케팅 및 영업전략 등 컨설팅 지원, Exit 기업에게는 기술특례상장을 통한 IPO 지원 및 기술이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다. 고성장·고부가 지식문화산업을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 지식문화산업의 성장기반 확보

정부는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과 사상 최악의 실업률 해소 등을 위해 고용과 부가

## 03.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 및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보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식집약도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정책적 지원효과가 큰 ‘지식문화산업’을 중점 지원분야로 설정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재설정하여 2020년까지 신규보증을 4조 2,000억원 규모(전체 보증의 23%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지식문화 관련업종을 추가로 발굴하여 기술금융 영역을 확대하고 효율적 지원 확대를 위한 능동적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 보증지원 확대 노력을 경주하여 2016년 보증잔액 비중은 16.8%를 달성하여 계획인 15.0% 대비 1.8%p 높은 수준을 달성하였다.

###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확대 노력

지식문화산업 중 고부가가치부문의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제조업 등에 지원하는 방식과 차별화하여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지원하는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2013.8월 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은 지식문화산업 영위기업의 융역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자금수요와 대금결제 간의 고질적인 금융갭(gap) 해소 및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 사업수행의 지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보증으로, 지식문화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중심의 심사 강화, 우선상환 보증특약 생략범위 확대, 보증 기한연장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 접근성 및 편의를 향상하여 2016년 2,293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였다.

###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를 통한 문화콘텐츠 제작자금 지원 확대

문화콘텐츠 제작자금 지원을 위해 2009년 9월 게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등 9개 장르에 자금을 지원하는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재무나 신용도 평가 대신 콘텐츠 중심의 심사 강화와 1억원 이하 소액 콘텐츠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성과보증료 이중부담 개선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경주하여, 2016년 영화 ‘인천상륙작전’,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 및 ‘화랑’, 공연 ‘헤드윅’ 등에 총 746억원의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을 지원하였다.

## 라. 고객중심의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

### 업무처리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한 고객만족 제고

보증기한연장 시 절차를 단순화하고 신용도 양호기업의 경우 기한연장 및 기보증회수보증 취급 시에는 심사 방법을 대폭 간소화하여 처리기한을 단축하였고, 은행 변경 또는 법인전환 업무처리를 단순화하였다. 또한 보증심사 시 비효율 업무부문을 제거하고 보증지원 후 사후관리 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단계별 신속한 업무처리와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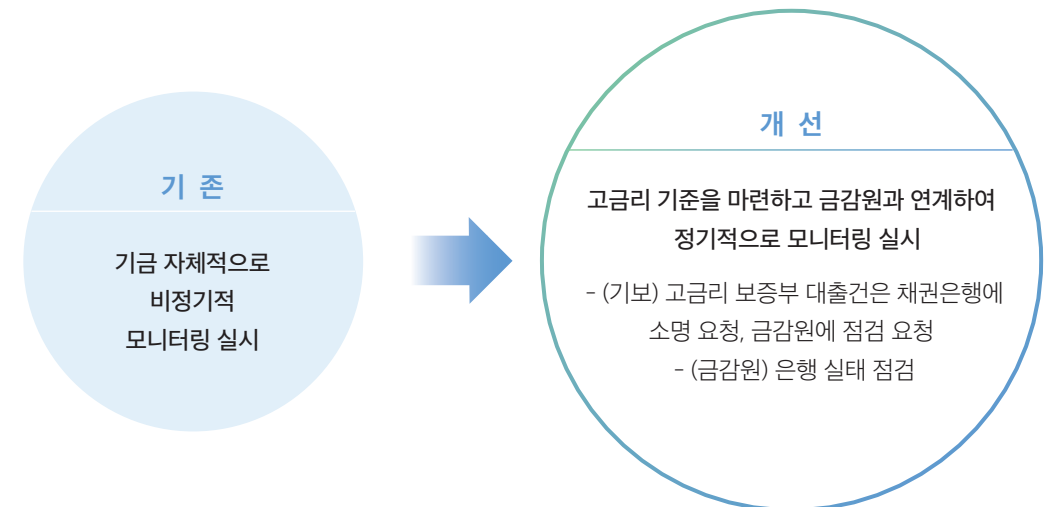
기업이 보증기한 연장 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기한연장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만기도래건 중 61.5%를 무방문으로 처리함에 따라 서류준비, 영업점 직접 방문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여 대고객 서비스 향상 및 영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 보증부대출 금리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기술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보증부대출의 보증약관을 개정하여 은행에서 임의로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못 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였고, 최근 3개월 보증부대출 실행금리를 기업 맞춤형으로 조화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한 금리가 적절한 수준인지 비교하기 위한 대고객 보증부대출 금리 공시시스템인 ‘금리알리미’를 운영 중에 있다.

이에 추가로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지 않도록 보증부대출의 고금리 기준을 마련하고 고금리 보증부 대출건은 채권은행에 소명 요청 및 금융감독원에 점검을 요청하는 등 보증부대출 금리의 과도부과 방지를 위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 보증부대출 금리의 과도부과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가. 기술평가 개요

### 기술평가의 개념

기술평가는 무형의 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의 미래가치 중심으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금액, 등급, 평점,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 기술평가의 범위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의 개요</li> <li>· 국내외 기술동향</li> <li>· 기술개발환경</li> <li>· 기술수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규모 및 특성</li> <li>· 동업계 현황</li> <li>· 시장수요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전망</li> <li>· 가격과 품질경쟁력</li> <li>·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li> </ul>

### 03.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 기술평가의 유형

기술평가는 평가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으로 구분된다.

#### 기술평가의 종류

평가구분	정의
기술가치평가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금액으로 표시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을 등급으로 평가
종합기술평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나. 기술평가사업 운영현황

##### 사업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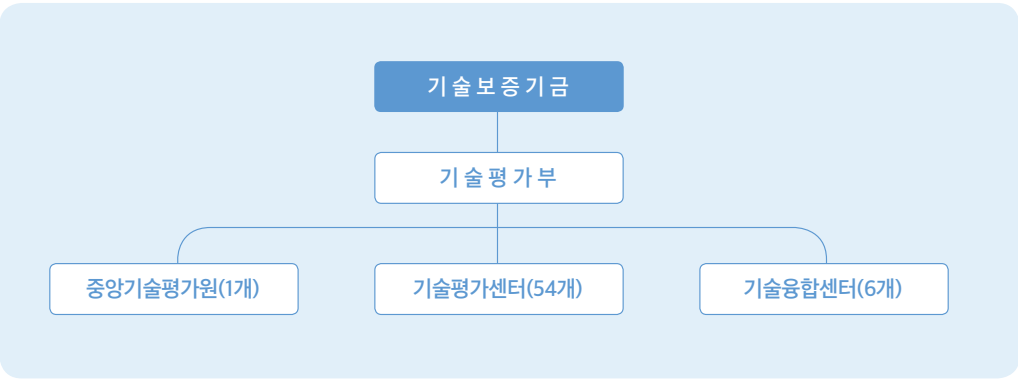
기보는 1997년 3월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센터 및 기술평가업무를 도입한 이래 기술평가보증제도 시행, 新기술평가시스템(KTRS) 개발, 벤처·이노비즈 기업 확인(인증)기관 및 TCB 평가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최고의 기술평가기관으로 기술평가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1997. 03. 기술평가센터 개소
- 1997. 05. 특허기술의 기술성·사업성 평가기관(발명진흥법)
- 1997. 10. 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 현물출자가액 평가기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1998. 08. 벤처기업 확인평가기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1998. 11. 외국인 현물출자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기술평가기관(외국인투자촉진법)
- 1999. 02. 기술평가보증제도 시행
- 2001. 04. 기술이전 및 사업화 대상기술의 기술평가·기술거래 전문기관(기술이전촉진법)
- 2001. 07.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심사참고용 기술평가기관(한국증권업협회)
- 2001. 08.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기관(중소기업청)
- 2004. 09. 기술평가인증제도(대내용) 시행
- 2005. 07. 신(新) 기술평가시스템(KTRS) 개발
- 2007. 04. 기술평가모형 KTRS 국내 BM특허 취득
- 2008. 04. 기술평가모형 KTRS 국제특허(PCT)의 개별국(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록 출원
- 2009. 10. 창업기업용 기술평가모형(KTRS-Startup) 국내특허 취득
- 2010. 04. 정부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
- 2010. 10. KTRS 피드백 시스템 국내특허 등록(2건)
- 2011. 01. KTRS 고도화 연구용역결과 적용·시행(KTRS-V2.0)
- 2012. 11. 녹색기술·산업 특성에 차별화된 녹색기술평가모형(GTRS) 개발

- 2013. 12. KTRS 계열모형 개선 및 체계 재정립(연구용역결과 적용)
- 2014. 06.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 지정
- 2014. 07. 예비창업자평가모형 개발
- 2015. 07. 기술가치평가 방법 및 평가 노하우에 대한 BM특허 등록(2건)
- 2015. 12. 투자용 기술평가모형 개발
- 2016. 01.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제도 민간등록 시행
- 2016. 08. CTCN(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가입

#### 기술평가 조직 및 인력

증대되는 평가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2016년 말 현재 중앙기술평가원 1개, 기술융합센터 6개, 기술평가센터 54개를 설치함으로써 특화된 기술평가·금융 영업망을 확보하였다.



구분	역할	주요업무
중앙기술평가원	고도로 전문화된 핵심 평가조직	· 고난이도 전문기술평가(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 등) · 정부 및 유관기관 대상 기술평가 마케팅 · 기술평가서 검증 및 평가지원 등
기술융합센터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에 특화된 조직	· 기술거래·M&A 관련 전문기술평가(수반보증 포함) · 기술거래 수요발굴 및 중개·마케팅 업무 · 기술정보 수집 및 가공, 대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기술평가센터	정형화된 기술평가 업무 수행	· 기술평가보증(지식재산보증, R&D보증 등) · 정부 R&D 경제성 평가 등 기술사업타당성 평가 · 기술신용평가, 벤처·이노비즈기업 선정 평가 등



## 03.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한편, 기술평가 전반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고 평가실무를 통해 일정자격과 평가역량을 갖춘 기술평가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확대하고 있다.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기금 전체 직원 수(명)	1,068	1,066	1,085	1,102	1,126	1,156
기술평가 전담인력(명)	559	532	578	552	592	581
박사급 인력(명)	131	134	147	154	168	190

※ 기술평가 전담인력 : 박사급인력, 전문직 직급 부여자, 본점 기술평가부서 근무자, 중앙기술평가원 근무자, 기술평가팀 소속자, 기술평가사 3급 이상 자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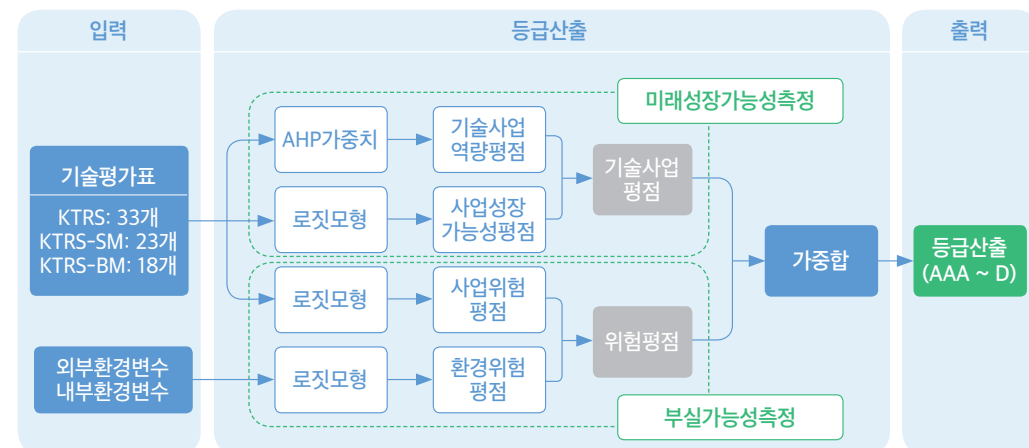
또한, 자체 보유 평가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 Pool을 구성·활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기계	정보통신	전자·전자	재료·금속	화학	섬유	생명(BIO)	환경	재무회계	특허법률	문화콘텐츠	기타	계
173	128	133	88	82	13	97	36	156	50	52	66	1,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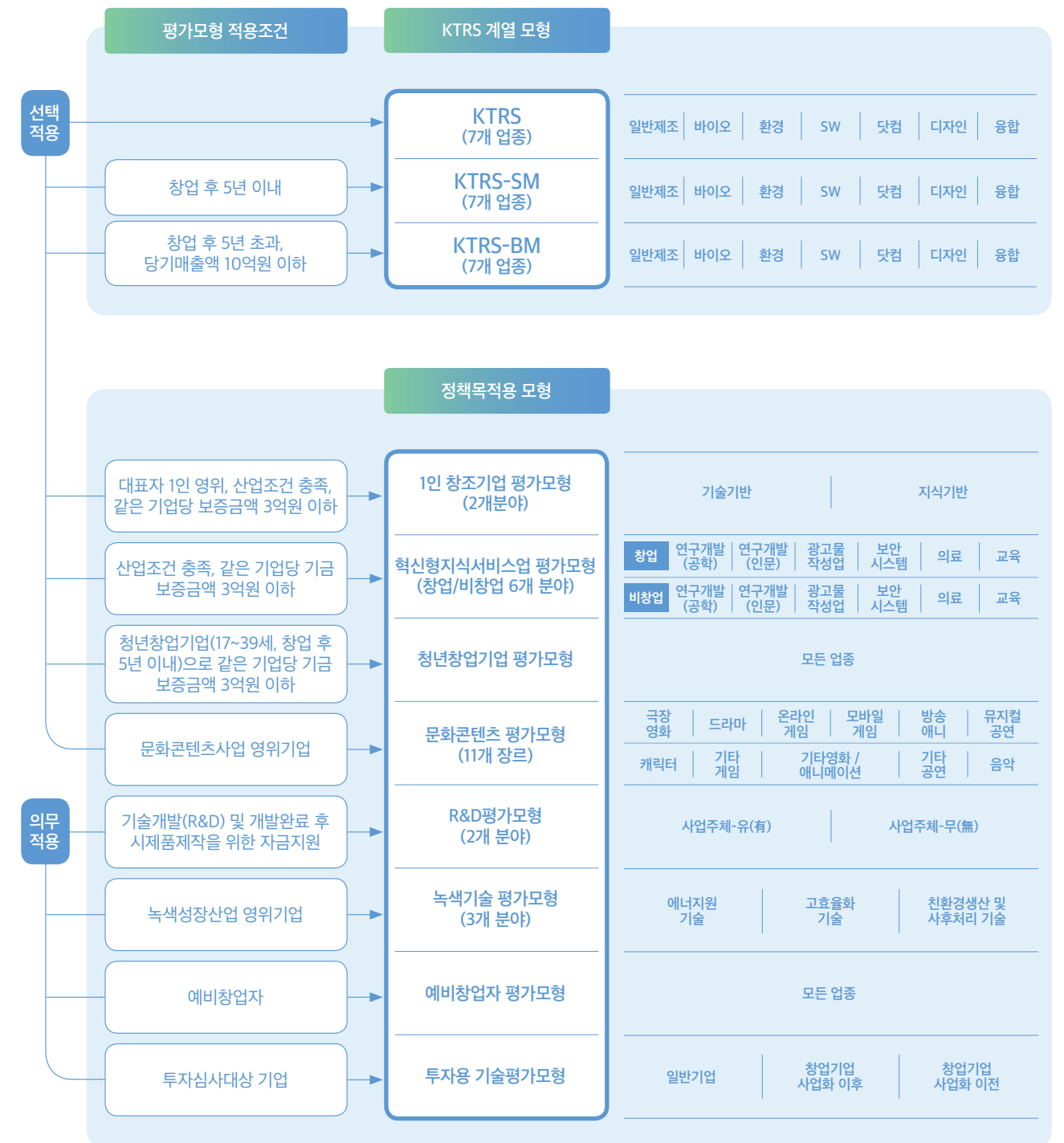
### 기술평가시스템

기보는 재무 위주의 신용평가모형으로는 선별·지원이 어려운 무형의 기술·지식 등에 대하여 기술성·사업성·시장성 등을 평가, 등급화하는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시스템(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을 개발하여 운용 중에 있다.

KTRS는 기술사업의 미래 성공가능성 및 기술기반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기술금융에 최적화된 평가시스템으로, 2005년 7월 기금 업무에 전면 도입 후 지속적인 검증과 개선으로 사고율 및 리스크 예측치가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기보는 평가목적 및 용도에 따라 활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평가모형을 추가 구축함으로써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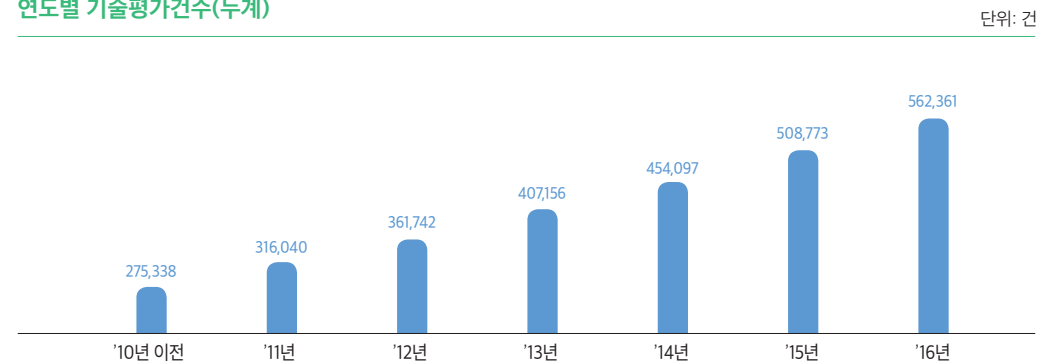


## 03.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 기술평가 수행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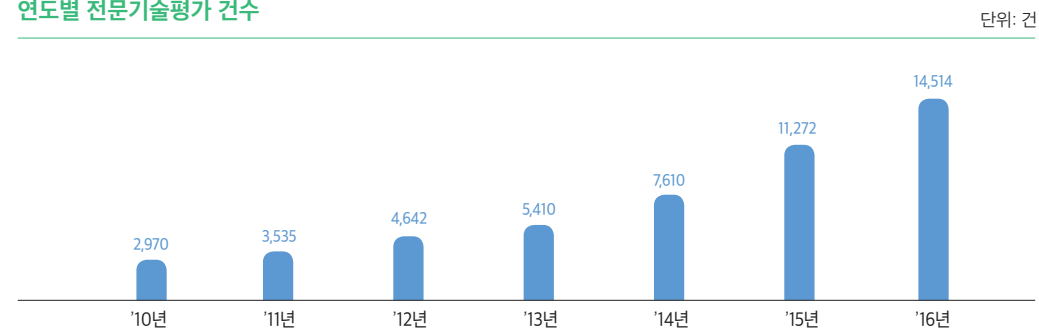
1997년 3월 기술평가업무를 개시한 이후 2016년 말까지 총 56만여 건의 기술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연도별 기술평가건수(누계)



특히, 기술평가 중 '정부 및 공공부문의 기술평가'와 '건당 평가료가 2백만원 이상인 민간부문 기술평가'는 일반평가보다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전문기술평가로서 국내 기술평가 시장확대와 기술금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연도별 전문기술평가 건수



2014년 7월부터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사업에 유일한 공공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CB)으로 참여하여 은행·민간 TCB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 8월부터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TCB제도의 조기 정착 및 기업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TCB평가서 연계 신용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제도\*를 시행하였다.

#### 기술신용평가(TCB) 관련 지원 현황

TCB 제공건수(건)			이차보전(백만원)	
'14년(7월~)	'15년	'16년	'14년(7월~)	'15년
4,360	9,639	13,062	933	1,988

\*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시 기술력 수준에 따라 1~3%p의 이자를 보전

### 다. 2016년 기술평가사업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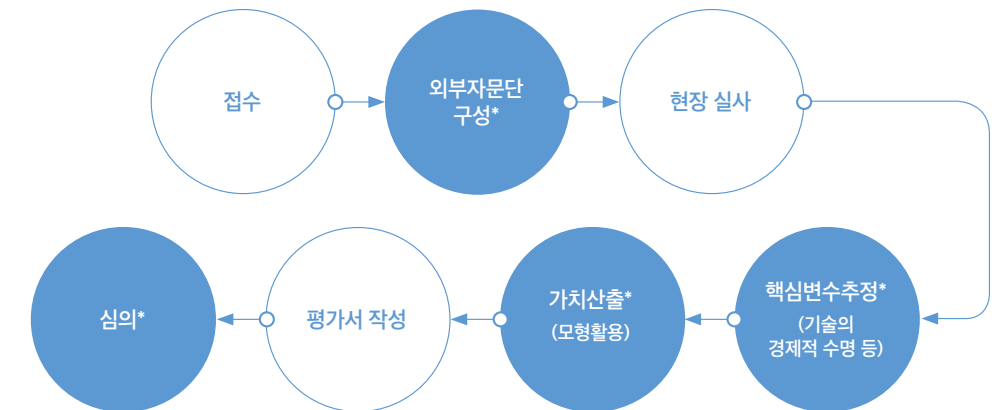
#### 국내 지식재산(IP) 금융의 프론티어로서 역할 수행

2006년부터 지식재산(IP) 기반의 선진형 기술금융인 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 기술가치연계보증 등을 국내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보는 2013년 8월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지식재산(IP) 보증 제도”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기술중소기업이 보유(또는 인수)한 우수 지식재산의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지원하는 차별화된 보증지원을 통해 IP 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식재산(IP) 보증은 일반 기술평가보증 절차에 기술가치평가 절차가 더해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높은 평가비용이 수반되어 지원 확대에 장애가 존재하였으나, 특허청, 시중은행,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유관기관과 공동지원 협무협약을 체결하여 우수 기술기업의 금융조달비용을 절감하고, 공격적인 목표 설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다.

#### 기술가치평가 프로세스

\* 일반 기술평가절차와는 차별화된 기술가치평가만의 심층 평가절차



특히, 2016년에는 동일한 가상공간에서 내·외부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평가협업시스템(cowork-kibo)을 도입하였으며, 기술가치 평가서의 종류를 4가지로 다양화하여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IP)의 평가체계를 시장중심으로 개선하여 IP 금융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 지식재산(IP) 관련 보증지원 실적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IP평가보증	1,020	1,915	1,313	2,602	1,794	3,811	2,323	5,278
IP인수보증	118	190	266	350	455	535	714	863

단위: 건, 억원

## 03.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R&D 종합지원 강화

기보는 기술평가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R&D를 선별하고 R&D 사업화 과정 전 주기를 지원하는 「R&D보증」을 2008년부터 도입하여 단계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R&D 자금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 R&D 전주기 보증지원 제도

단계별 구분	계획 또는 개발단계	시제품 제작단계	사업화 또는 양산단계
개발단계			
사업화준비단계			
사업화단계			
대상자금	기술개발 중(R&D)에 있는 신청기술의 개발자금	개발완료 후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개발완료 과제의 사업화와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평가방법	사업화타당성과 경제성 분석		사업화 타당성 분석
평가모형	R&D평가모형		KTRS / KTRS-SM

특히, 2016년도는 R&D종합지원시스템 사상 최대인 4.2조의 R&D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 R&D 보증지원 실적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R&D 보증 총공급	6,713	24,022	8,543	29,515	10,853	34,257	13,860	41,937
개발단계	2,650	4,506	3,601	5,987	5,023	8,103	6,835	10,651
사업화준비단계	687	1,208	687	1,139	731	1,210	749	1,180
사업화단계	3,376	18,308	4,255	22,389	5,099	24,944	6,276	30,106

단위: 건, 억원

또한 2016년도는 R&D 금융 지원대상을 자체개발 R&D에서 외부기술도입(개방형 R&D)까지 확대함으로써 R&D 성과물(IP)의 사업화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그 공로로 “지식재산위원장(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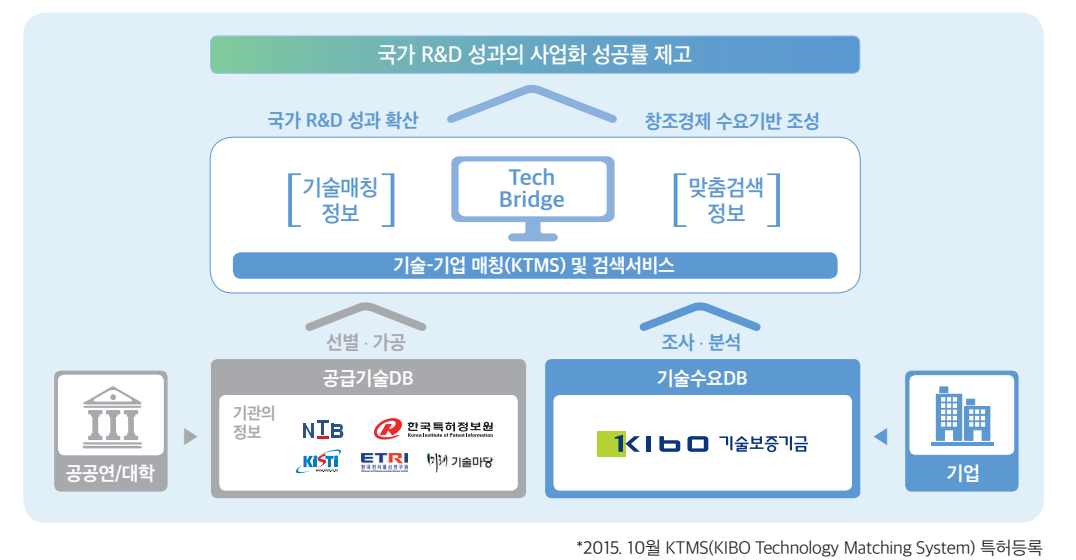
#### 개방형 R&D 지원 시스템



### 수요중심의 대한민국 대표 기술거래 플랫폼 정립

기보는 기술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지원, 일자리 창출 등 국가 R&D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4년 1월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14년 9월 온라인 플랫폼인 Tech-Bridge(2016년 12월 말 현재 기술수요정보DB 누적건수: 3,873건, 공급기술정보DB 누적건수: 304,820건)를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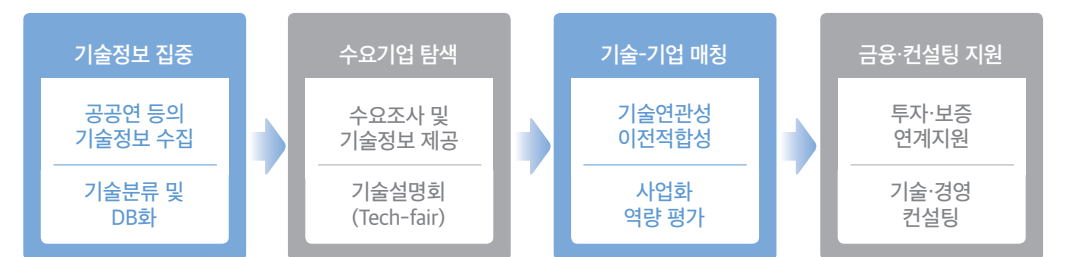
#### 기술거래 플랫폼 Tech-Bridge



2016년에는 기존에 기술중심의 검색기능 외에 시장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 증대와 플랫폼 활용 편의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별 검색 신설, 기술검색 고도화 및 기관별 보유(수요)기술 코너를 신설하는 등 Tech-Bridge를 공용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하였다.

특히, 금융권(2016년 12월 말 5개 은행)과 기술수요 발굴 협약,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정보 집중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2016년 12월 말 현재 153개 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프로세스의 체계화를 통해 2016년 1,415건의 기술이전 수요발굴과 534건의 기술이전 계약체결, 기술이전보증 414억원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프로세스



※ 기술수요 발굴, 기술매칭에서 기술금융까지 One-stop 지원



## 03.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 기술평가시장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

기보는 기술평가 선도기관으로서 기술평가의 외연을 넓히고 신규 평가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형 모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와의 MOU를 통해 코스닥·코넥스 기술특례상장평가를 확대·시행함으로써 상장을 위한 재무요건이 일부 미흡하더라도 기술평가를 거쳐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 기술특례상장평가 제도

구분	내용				
요건	전문평가기관 중 2개 기관으로부터의 기술평가 결과가 BBB 이상이고, 1개는 A 이상				
평가실적 및 성과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평가기업(개)	4	5	12	12
	상장기업(개)	1	2	3	1

또한 기보는 민간 VC 등의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 대상의 선별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성장성, 투자회수 가능성 관점에서 도출한 “투자용 기술평가모형”을 개발·보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4월 투자용 기술평가인증을 시행하였으며, 기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평가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R&D기획지원사업(중기청), 연구성과사업화지원사업(미래부),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특허청), SW기술 가치평가(미래부) 등 공공부문의 IP, R&D 사업화 전문기술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기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금융 체계화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 방안으로 “기술금융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산업분야별 기술·시장의 특성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시중은행 및 VC 등의 기술금융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 기술금융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기술금융 전문 연수프로그램

교육과정	기술금융의 이해(온라인)	기술신용평가(집합연수)
교육내용	기술평가이론 및 기술금융 기초	3급시험 대비과정
수강인원	2,016명	51명

특히, 2016년에는 기술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신용평가사” 자격검정 제도를 시행하여 민간 기술평가 전문인력 1,023명(1급 13명, 2급 187명, 3급 823명)을 배출하였으며, 기술평가의 민간 확산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 기술평가 글로벌화를 통한 국제신인도 제고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

그동안 기보는 국제 교류와 기술평가시스템(KTRS)의 해외 전수를 통해 기술평가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을 높여왔으며, 2016년에는 싱가포르 기업협회(SPF)의 요청으로 연차총회에서 KTRS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실시하는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협력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KTRS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EU 내 KTRS 적용방안 로드맵 수립 등 KTRS 국제화의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 KTRS 유럽적용 로드맵

STEP_01	STEP_02	STEP_03
합의도출('16년)	Pilot Test('17년)	Full Test('18년)
<p>EC에서 유럽 내 KTRS 적용을 위한 협조요청('16.11.)</p> <p>▶ 유럽혁신기업 평가모델로서의 KTRS 적용가능성 모색</p>	<p>KTRS 현지화 적용가능성 검토 및 파일럿테스트</p> <p>▶ 유럽 현지적용을 위한 KTRS 리뷰 및 모형설계</p>	<p>30~50개 유럽 내 환경기업에 대한 KTRS 적용 평가</p> <p>▶ 유럽혁신기업 평가모델로 적용</p>

※ EU IPF('12)에서 국제적 모범사례로 소개(Innovation Partnering Forum에서 Good Practice로 선정)

또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보의 선진 기술금융 및 기술평가시스템을 전수하였고 그 중 태국, 베트남은 전담기관 도입 등 기보의 정책제안이 반영되어 기술평가(KTRS)의 글로벌 수요기반을 구축하였다.

#### 기술평가 글로벌 수요기반 구축

구분	추진기관	추진내용
실무역량 지도	베트남 기술혁신원(SATI)	베트남 기술평가시스템(VTRS) 활용교육 실시('16.11월)
현지안착 지원	태국 신용보증공사(TCG)	태국 기술평가시스템(TTRS) Pilot test 실시('16.11월)
금융제도 전파	페루 보증공사(POGAPI)	페루 보증공사와 기술평가보증제도 전수('16.6월)

한편, 기보는 거듭되는 저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글로벌 진출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정보와 자금부족 등으로 해외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어, 기보의 강점인 7만여 거래기업 정보·자금지원 기능과 협업기관의 다양한 진출지원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중소기업 글로벌 도약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국내거점(정보통신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해외거점(미국, 중국, 유럽 등) 간 상호 조직·인력을 공유하는 유기적 상시 협업체계를 통해, 글로벌 진출 예비기업을 발굴하고 현지화·판로개척, 글로벌 기술이전 등 다양한 진출형태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03.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1) 파리합의문 제 10조, Paris Agreement, '15.12.)

2)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GGGI) 페어 베르틸손 사무총장보, 아시아개발은행(ADB) 최원목 이사, 일본 지식재산협회 요리 마사 수와 박사, 유엔환경계획(UNEP) 지타니 올드 다 기술 분과장 등

### 기후변화대응 기술금융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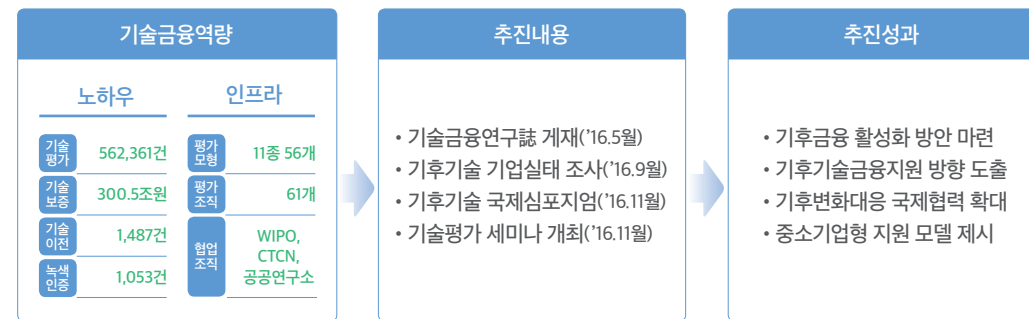
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선진국에서 전회원국으로 확대되고, 기후변화대응의 해법으로 기술이전을 주목<sup>1)</sup>하는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기보는 2016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UN산하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Climate Technology Center Network)에 가입하였다.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달성에 약 33.7조원이라는 막대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보는 CTCN 가입을 통하여 국제기구를 활용한 실행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기보의 기후기술금융 역량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금융수단 마련과 기후금융 필요성을 확산하였다.

기보는 2016년을 기후변화대응 기술금융의 원년으로 삼아 중소기업형 기후기술금융지원시스템 모색을 위한 폭 넓은 연구·조사와 함께 기후기술 국제심포지엄을 공동주관하여 기후기술분야의 국제석학<sup>2)</sup>을 초청해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기후기술협력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보는 국내 기후기술기업 실태조사를 전격 실시하여 설문조사, 심층면접으로 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고 중소기업형 지원모델을 도출하였으며, 기술평가세미나를 공식 개최하여 중소기업과 정부, 공공기관,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기후기술기업의 기술개발·이전 및 사업화 촉진과 기술이전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형 지원모델을 제시하였다.

### 기후기술금융 추진성과



### 가. 개요

기보는 기술·창업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보증연계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과 연계하여 기보가 직접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2년 3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2012년 6월 시행)으로 보증연계투자가 기보의 고유 업무로 법제화 되었다. 특히 기보는 기관투자 유치 경험이 없는 창업초기·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중소기업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인증(또는 신호) 효과를 제공하여 민간의 후속투자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증·융자 등 간접금융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투자' 중심의 모험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증연계투자 사업의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나. 투자종류

투자는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방식으로 한다.

### 다. 투자대상기업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①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창업기업  
\* 단,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R&D 및 신성장·미래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은 설립 후 5년 초과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 ② 기 보증기업(또는 보증 승인기업)
- ③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의 우수기술기업  
\* 단,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투자와 보증의 통합한도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 ④ 법상 벤처기업(또는 이노비즈기업)

### 라. 개별기업 투자한도

기업당 투자한도는 30억원, 통합한도(보증+투자)는 100억원으로 한다. 단, 투자금액은 기보가 해당기업에 보증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기술평가 BB 이상	기술평가 BBB 이상
기업당 투자한도	10억원	30억원
기업당 통합한도(보증+투자)	50억원	100억원
관계기업군 투자한도	30억원	30억원

※ 투자한도: 기보 투자금액 기준

※ 통합한도: 기보, 신보, 보증재단의 보증금액 및 투자금액 모두를 합한 금액

## 03.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 마. 업무프로세스

기술평가 절차를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신용도 및 투자수익성 등 투자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 바. 운영실적

2005년 투자제도 시행 이후 2016년 말까지 186개 기업에 2,126억원을 투자하여 19개 기업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는 등 누적투자수익률 7.3%를 시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연도별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수익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합계	잔액
업체 수	2	10	7	8	9	8	4	2	30	35	35	36	186	132
투자 금액	5.0	85.0	81.5	90.0	90.1	95.0	55.1	35.0	431.8	366.7	405.8	384.6	2,125.6	1,537.2
투자 손익	-	-	29.0	2.1	19.8	5.2	21.4	41.1	22.8	△17.8	22.3	9.8	155.7	

단위: 개, 억원

### (2) 투자옵션부 보증

### 가. 개요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보증부대출로 Seed Money를 우선 지원하고, 일정시점 이후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기금의 선택으로 보증부대출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보증으로, 2014년 4월 제도를 시행하였다. 특히, 보증지원 활성화를 위해 2016년 2월부터 대상기업 및 보증한도 등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나. 대상기업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의 우수기술기업

### 다. 대상채무

투자옵션부보증을 신청하는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만기 일시상환 운전자금대출

### 라. 보증한도 및 기한

기업당 10억원 이내 및 취급 후 5년 이내로 운용

### 마. 업무프로세스

#### 투자옵션부 보증 Process



### 바. 우대사항

전액보증(100%) 및 0.5% 고정보증료를 적용



## 03.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 05 기업지원

#### 가. 기보벤처창업교실

기술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기술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창업촉진 등 창조경제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 2016년 기보벤처창업교실 수료자 현황

회 차	1차	2차	합계
수료자	60	68	128

단위: 명

#### 나. 청년·기술창업교실(舊 새싹기업 CEO 성공창업강좌)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1년 이내인 기술사업 영위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 기업가 정신 함양, 기보 지원제도 소개 등 무료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이 사업초기에 필요한 창업기업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의 조기안착을 도모하고, 수료자 간 네트워크를 통한 이업종 교류로 신사업분야 개척 및 업무파트너십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2016년 청년·기술창업교실 수료자 현황

회 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합계
수료자	28	36	49	44	19	30	206

단위: 명

#### 다. 도약기업 CEO 전문강좌

기보 보증을 이용 중인 창업 후 3~5년차 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우수기술기업의 CEO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기업의 성장 및 도약에 필요한 CEO 역량강화 전문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박 3일의 무료 강좌로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 2016년 도약기업 CEO 전문강좌 수료자 현황

회 차	'16년 1차
수료자	41

단위: 명

#### 라. 기술·경영컨설팅

기업성장 전 주기에 걸친 기술·경영컨설팅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평가 및 보증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개선 및 실패예방을 위한 기업진단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위기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기업들을 위한 창업멘토링 프로그램과 창업 및 진단컨설팅 지원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 론칭과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초기부터 기업의 사업현황 분석과 다양한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통해 실현가능한 성공창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舊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사업)을 시행하여 기업의 「기업진단 → 처방(맞춤형 안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경영위기를 예방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2015년부터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경영개선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애로 해소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인력 및 TOOL을 활용하여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도약기업, 투자기업, 기술이전기업, 재기지원기업 등 기금 보증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문컨설팅 사업을 2014년 하반기부터 도입, 시행함에 따라 창업 준비부터 위기/재도전까지 단계별 성장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체계를 완성, 기업성장 전 주기에 걸친 기술·경영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하였다.

##### 기술·경영컨설팅 개요

창업준비 단계	창업초기 단계	성장/성숙 단계	위기/재도전 단계
<b>창업멘토링프로그램</b> (예비창업자,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b>창업컨설팅</b> (벤처창업교실 수료자 등 대상, 1MD)	<b>진단컨설팅</b>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기업 등 대상, 3MD)	<b>전문(심화)컨설팅</b> (성장·도약기업·재기지원기업 등 대상, 4MD 이상)	<b>진단컨설팅</b> (경영개선지원기업 대상)
		<b>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b> (경영개선기업, 구조개선기업 대상)	

※ MD: Man-Day(전문가 1인이 1일 8시간 기준으로 실시하는 컨설팅 수행 단위)

##### 2016년 기술·경영컨설팅 지원 현황

구분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창업컨설팅	진단컨설팅	전문컨설팅	사전부실예방 지원사업	합계
지원건수	1,261	40	369	104	242	2,016

※ 舊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사업

단위: 건

### 03.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 마. 성장단계별 중소기업 지원제도

성장단계별 중소기업 지원제도

① 창업(준비) 단계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전 창업자금 지원 가능금액을 결정해주고, 창업 즉시 지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 창업 5년 이내 기업으로 경영주가 만 17~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지원
맞춤형창업성장 프로그램	• 창업 5년 이내 기업으로 6대 분야 해당기업 지원 * 1인창조, 녹색, 지식문화, 첨단뿌리산업, 이공계창업, 4050창업
특허창업 특례보증	• 창업 5년 이내 기업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기업 지원
R&D보증	• R&D 전주기(개발, 사업화준비, 사업화)에 걸친 R&D금융 Matching을 통해 체계적인 R&BD금융 지원
청년·기술창업교실	• 만 19세~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1년 미만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기업가 정신 함양, 기보 지원제도 등 교육
벤처창업교실	•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CEO에게 자금조달전략, 인사, 법무, IP관리 등 창업실무 교육
② 도약 단계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 정보통신 솔루션개발, SI서비스용역, 문화콘텐츠 제작 등의 체결에 따른 프로젝트 전 주기의 보증지원
예비스타벤처기업육성 특례보증	• 성장도약단계에 접어든 우수벤처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우리나라 대표기업군으로 육성
기술·산업융합보증	• 기술·산업융합을 진행 중이거나 융합성과를 활용·사업 중인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
지식재산(IP) 금융지원	• 지식재산(IP)의 미래가치 및 사업화 기업의 지식재산(IP) 인수자금을 지원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 일자리창출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우대 지원 및 신규 고용(예정)인원 직접 채용 소요자금 지원
문화산업완성보증	• 문화콘텐츠(영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방송) 제작 기업 지원
보증연계투자	• 보증과 연계하여 기업이 직접 투자함으로써 중소기업 재무구조개선과 직접금융 활성화
벤처·이노비즈기업 확인평가	• 벤처기업(기술평가보증기업,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청 소관 이노비즈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및 확인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거래)	• 기술 이전·거래 시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 및 제시
기술평가인증 (투/융자 참고용)	• 평가등급, 의견 등을 명시한 인증서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여 투·융자 등에 활용
도약기업 전문강좌	• 도약기업(창업 후 3~5년차 성장가능성 보유 우수기술기업) CEO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 전략시뮬레이션 등 고급 전문프로그램 교육

③ 성장/성숙 단계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이노비즈기업 협약보증	• 은행과 금융지원협약을 통해 이노비즈기업 우대지원 * 15개 은행: 산업, 기업, 우리, 하나,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 금융기관은 특별출연을 통해 보증재원을 조성하고 기보는 부분보증 및 보증료 우대
상생협약보증	• 대기업 등이 추천한 협력업체에 보증지원 후 취급실적에 따라 대기업 등이 특별출연
시설자금 특례보증	• 시설확충 등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보증심사 등을 우대하여 시설자금 지원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 기술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수출 등 거래처 확대에 따른 원활한 수출관련 자금 지원
유동화회사보증	•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 인수를 통한 직접금융 조달기회 부여 및 재무구조 개선
기술이전/M&A 중개	• 기술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개업무
녹색인증평가	•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기술 또는 사업의 기술우수성과 녹색적합성을 확인·인증
R&D과제의 경제성·사업성 평가	• 추진 중인 R&D과제 또는 기술사업에 대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평가

④ 위기/재도전 단계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긴급경영안정보증	• 주요거래처 조업중단 등 긴박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보증지원
경영개선지원보증	•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보증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
유동성지원 (Fast-Track)보증	• 금융위기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절차 (Fast-Track)로 유동성 지원
공동위크아웃기업보증	• 채권은행협약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경영정상화 계획이 확정된 기업에 대하여 보증지원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 실패한 중소기업이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창업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을 지원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 재기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회생지원보증과 신규보증을 함께 지원
중소기업 사전부실 예방지원사업	• 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위기를 예방하고, 경영 전반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기업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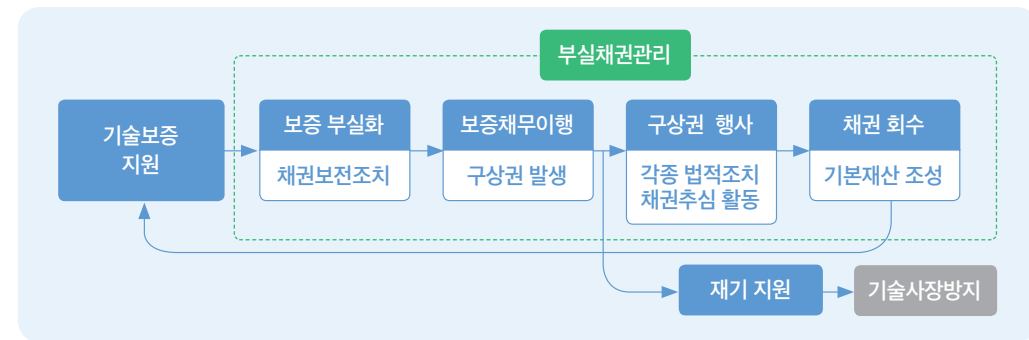
## 03.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 06

#### 재기지원·부실채권회수

### 가. 성실실패자 재기금융 활성화(재기지원)

기보는 부실채권관리 패러다임을 채권회수에서 성실실패자 재기지원으로 전환하여 재도전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4월 재기보증제도를 시행한 이래 매년 지원업체 수 및 지원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 증가하는 재기보증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공적보증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기보는 성실실패자에 대하여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상권 관리사업에 있어서 채권회수와 채무자 재기지원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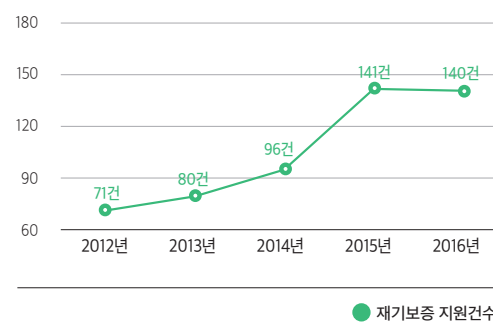
### 다중(고액)채무자 지원을 위한 “재창업 재기보증” 활성화 노력

다중채무자 재기보증 지원강화를 위해 주채무자 원금감면 확대(50%→75%), 국세체납자 및 실패 후 3년 경과하지 않은 채무자도 일정요건 충족 시 재기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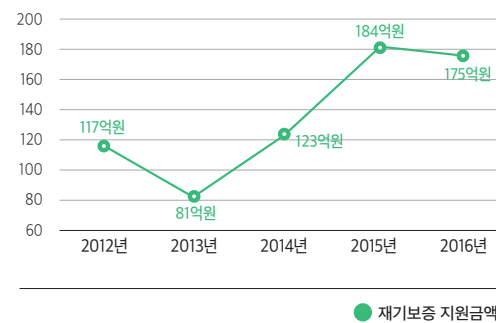
### 실패기업인(재도전기업) 모럴해저드 방지 노력

한번 실패한 기업인은 부도덕하다는 부정적 여론이 존재하여 재기보증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도에는 실패기업인 모럴해저드 사전점검을 위한 “성실경영평가”를 시행하였다. 경찰청, 중기청 등 협업을 통해 실패기업인의 과거 범죄경력이나 부도덕 경영사실 등을 사전점검하는 제도로써, 예비평가단계에서 2차에 걸친 성실경영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기보증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높은 재창업자 26%의 재기보증 지원을 차단하여 재정집행의 건전성을 도모하였다.

#### 재기보증 지원건수



#### 재기보증 지원금액



모럴해저드 방지활동 강화 등 엄격한 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2개년 연속 140개 이상 업체에 재기보증을 지원하였다(재기금융 보증시장 약 90% 차지).

### 재기금융의 성공적 확산을 위한 A/S 활동 강화

기보는 “성실실패자 발굴 → 재기보증 지원 → 사후관리 및 A/S활동 강화 → 성공재도약”의 전 과정을 연계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코자, 재기기업인에 대한 보증지원과 더불어 2차실패 예방을 위한 성장프로그램(재기기업인 전문강좌, 경영컨설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실패기업인의 재기성공사례를 발굴,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재도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

구분	재기기업인 전문강좌	재기기업 기술·경영컨설팅
대상	• 재기보증 지원기업 대표자 33명	• 재기보증 지원기업 13개
내용	• 실무전문강좌(세무, 회계, 노무관리) • 재기성공기업 대표자 초청강연 등	• 외부전문가 기술개선, 경영일반 컨설팅 • ('14년) 5회 → ('15년) 7회 → ('16년) 1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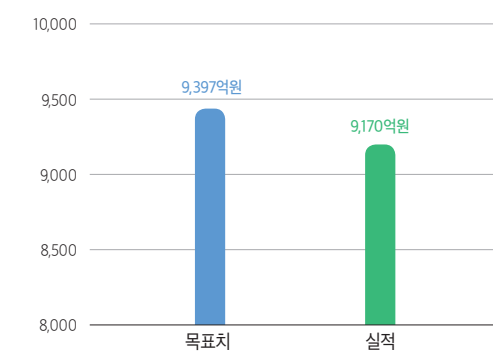
### 나.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부실채권 회수)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 활성화와 더불어 기보는 보증재원 확보 및 보증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사고율 관리 및 부실채권 회수에 전사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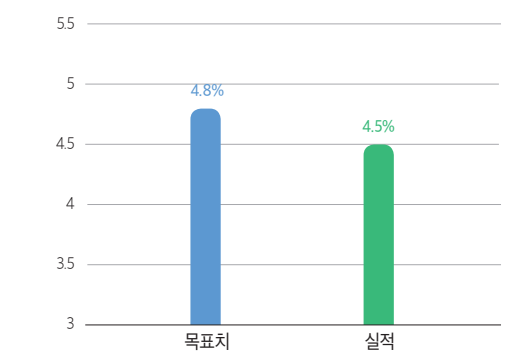
### 안정적인 사고율 관리

기보는 각 영업점별 보증자산의 리스크율을 산출하고 연간 사고예상금액을 리스크율에 따라 배분, 영업점 단위 목표사고율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16년도는 사드배치 갈등으로 인한 중국수출 감소, 본격적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연간사고율을 목표치(4.8%) 범위 내인 4.5%로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

#### 사고순증금액



#### 사고율





## 03.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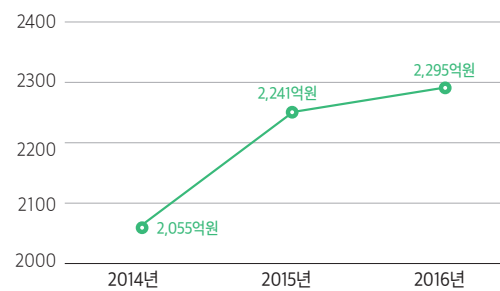
### 부실채권 회수실적 제고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로 인한 채무자수 감소, 회생절차 활성화에 따른 권리행사 제한채권 증가 등 회수환경 악화에 불구하고, 전사적 노력으로 2015년 대비 54억원이 증가한 2,295억원의 부실채권을 회수하였다. 이를 통해 약 2조 2천억원의 기술보증지원 여력을 확보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뒷받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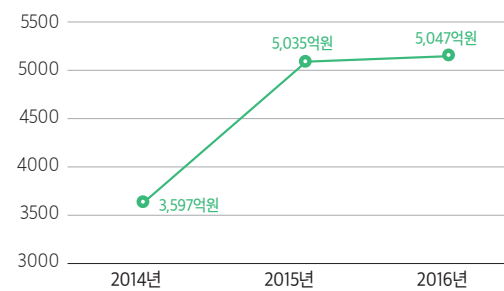
### 특수채권 매각 등을 통한 채권관리의 효율화

기보는 회수가능성 희박한 특수채권의 누적적 증가에 따른 채권관리 효율성 저하와 주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 불가로 인한 자체 회생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1년부터 채권매각을 실시한 이래 2016년 말 현재 6조 9천억원의 특수채권을 매각하였다. 이를 통해 채권관리 전담 정규직원들이 회수가능성 높은 구상채권에 집중, 효율적인 회수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실채권 회수금액



특수채권 매각금액



## 07 인재채용 및 인재개발

### 가. 인재채용

기보는 중장기 경영계획에 기반한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에 의거 종합적인 기술금융 지원기관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소요인력을 산출하여 신입직원 채용규모를 산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및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의 신입직원 채용을 실시하였다.

기보는 TCB, 기술이전 사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의 신규정책사업 추진을 통한 인력증원(22명) 및 자체 채용 여력 확보노력을 통하여 제한된 여건 내에서도 40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하였다. 신입직원은 전원 청년(34세 미만)으로 채용하였으며, 취업지원대상자(3명), 장애인(3명), 고졸자(2명), 지역인재 20명(50%) 등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기보는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2016년 박사급 인력 6명(15%), 이공계 12명(30%)을 채용하여 타 금융기관 대비 상당히 높은 비중의 기술평가 전문인력을 채용하였다.

또한, 기보는 신입직원과 청년인턴 채용 시 여성인력 채용 쿼터(35%)를 설정하고 여성면접위원을 배치함으로써 여성지원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는 바, 2016년 신입직원(40명) 중 16명(40%)의 여성인력을 채용하였으며, 청년인턴인력(62명) 중에서도 70% 이상을 여성인력(45명, 72.6%)으로 채용하였다. 이외에도 기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 비정규직인력 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취약계층 여성의 고용 안정성 향상과 비정규직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 신입직원 신규채용 실적

구분	채용 인원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청년인턴 경험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여성	이공계	고졸
신입직원	40	3	3	11	20	16	12	2

단위: 명

#### 청년인턴 신규채용 실적

구분	채용인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여성	고졸
2016년	62	10	38	45	17
2015년	52	7	28	35	8
계	114	17	66	80	25

단위: 명

## 03.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 나. 인재개발

기금은 창의적인 사고로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인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기금 직원들이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금은 인재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본부에 HRD 전담조직인 인력개발팀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자체 HRD 연수를 위한 연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기금의 HRD 체계는 분야별 사내강사 등 전문인력 Pool의 인적자원과 연수원, Cyber 인력개발원, Cyber 문화센터 등의 Hardware, 연수이수학점제, 연수규정 등의 Software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전 직원 기본역량, 계층별 리더십역량과 직무역량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과정, 전문과정, 고급과정의 3단계로 세분하여 각 직위 및 직무별 연수로드맵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은 디지털 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집합교육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며 자기주도적인 상시 학습문화 정착을 위해 Cyber 인력개발원 시스템을 구축 및 리뉴얼 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당수의 업무연수를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2016년도 기금의 인재개발은 중장기 경영전략에 기초한 인력운영계획 및 인재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년도 연수 실적에 대한 결과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 2016년도 종합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기보는 2016년 직무역량 개발 고도화를 위해 실무능력 향상 연수과정을 중점 추진하였는 바, 기술평가사 보수과정, 채권관리 고급과정 등 기본과정에 기술평가 실무연수, 문화콘텐츠 실무연수를 개설하여 집중적으로 연수 실시하였고, 해외 MBA(1명 선발, 1명 연수실시), 국립대학 고급금융과정(3명), 금융연수원 전문과정(Pre-CEO 5명), 국내대학원 장학생 선정(40명)을 통해 미래경영인재를 지속 양성하였다. 또한, 조직문화 창달 및 가족친화 연수 과정 확대 운영을 위해 가족사랑캠프(6월, 2회차 201명), 권역별 문화체험연수(전주)(11월, 242명), 장기근속 직원(20년차) 조직활성화 연수(5월, 49명), 기술·문화체험연수(연중, 59명), 노사한마음연수(10월, 105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여성관리자·책임자의 리더십 개발 등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별 리더십과정 상시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등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2016년도 연수 실적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내부 집합연수	1,711	2,948	2,937	1,956
외부 위탁연수	535	699	799	1,027
사이버연수	4,158	3,078	3,410	3,884
국외연수	60	58	61	61
계	6,464	6,783	7,207	6,928

단위: 명

### 08 윤리경영

### 가. 추진방향 및 전담조직

- 윤리경영 최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실천체계 개선
- 윤리규범 준수의 내실화를 통한 청렴문화 대내외 확산

구분	협업체	역할 및 기능	추진성과
정책	윤리경영위원회	- 청렴정책 추진계획 결정	- 임직원의 청렴성·신뢰도 제고
실행조직	반부패협의회	- 윤리경영위원회 실무기구	- 불합리한 제도 17건 개선
	청렴멘토	- 영업현장의 청렴활동 리더	- 기관 자체청렴도(9.32) 상승
	준법감시단	- 법령·내규 준수 모니터링	- 업무처리 적정성 8,152건 점검
외부자문	청렴옴부즈만	- 부패요인 외부감시 및 평가	- 계약 96건 점검 및 2건 제도개선
	청렴파트너십	- 우수사례 공유 및 타 기관 전파	- 우수사례 9건 전파 및 4건 도입

### 나. 윤리경영 추진현황

- 예방적 윤리경영 활동 강화로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

#### ① 부패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상시적인 예방점검 활성화

구분	주요내용	추진성과
준법감시 프로그램	- 준법감시역의 부패예방 현장점검 및 테마항목 점검(2,991건)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 등급 달성
신고센터 운영	- 클린신고센터, 청탁등록센터 및 금융부조리신고 등	
행동강령 점검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부패방지 예방활동	
고객참여형 예방활동	- 청렴협약서 체결, 투명경영 이행약정 등	

#### ② 불법 보증브로커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 건전성 확보

- 브로커 근절을 위한 시스템 강화 및 신고기간 운영을 통한 보증사고 예방

추진실적	주요내용
기망거래시스템 도입	- 기망(사기, 허위) 거래 의사를 가진 기업의 선별 시스템 구축
행정정보 조회	- 대표자 건강보험정보 및 행정자치부 행정정보 조회 시스템 강화
특별신고기간 운영	- 홈페이지, 포스터 등 특별신고기간 운영 집중 홍보를 통한 브로커 활동 차단
추진 성과	- 불법 보증브로커에 의한 부패사건 예방(브로커 개입 의심민원 “ZERO”)

## 03.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 ❶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으로 전 직원의 윤리공감대 형성
- 직위·직무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임직원 윤리의식 고도화 촉진

구 분		교육 대상	주요내용
내부	생애주기별	- 신입직원, 승진자, 고위직 등(231명)	- 윤리규범, 청렴이슈 및 청렴연수원 입소
	직무특성별	- 인사·계약·예산, 청렴업무, 준법감시	- 공익신고 등 사례중심 청렴교육
	현장직원	- 영업점 근무 직원	- 임원의 '찾아가는 윤리교실', CS클리닉 등
	주제별	- 전 직원(연 3회)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공익신고 등
외부	보증기업	- 신규 보증업체, 벤처기업 인증업체	- 청탁금지법 등 윤리규범 발송(매월)
	협력업체	- 콜센터 외부용역 직원, 계약업체	- 공익신고, 청탁금지법 등
모니터링 및 환류		- 청렴활동에 대한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프로그램 만족도 파악 및 제도개선	
		- 대내외 평가: 효과성 측정 후 차년도 청렴업무 추진계획에 반영	

- 윤리경영 우수사례 전파 및 홍보

- ❶ 반부패 수범사례의 공유 및 청렴문화 확산

구 분		모범사례	홍보수단
대내	임직원	- 행동강령 등 윤리규범(매월)	- 청렴알리미(e-mail)
		- Clean Kibo-Day, 윤리이슈 댓글참여 등	- 그룹웨어
대외	보증고객	- 청렴계약서 등 고객참여 정책(매월)	- 청렴메아리(e-mail)
	일반국민	- 수의계약, 감사결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 기금 홈페이지
		- 공익신고보호제도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	- 기금 사보

- ❷ 국내외 기관에 「Clean Kibo」 우수사례 전파 및 협업체계 구축
- (청렴이미지 확산) 베트남 및 대만 보증기금에 우수한 청렴제도 전파

구 분		대상	활동내용
국내	청렴한세상실천협의회	- 군인공제회 등 12개 공공기관	- 기관별 반부패 우수사례 공유
	청년기술 창업교실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 대표자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청렴활동 안내
해외	베트남	- 국가기술혁신기금(NATIF)	- 행동강령, 공익신고 보호제도를 베트남어, 영어 등 교안작성, 교육 전파
	대만	-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SMEG)	
	UN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활동 수행	- 3년 연속 사회책임경영보고서 발간

### 다. 윤리경영 추진성과

- 2016년 국민권익위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
- 기금 임직원에 대한 국민들의 청렴성 및 신뢰도 향상

### 가. 추진개요

2016년도 CS업무는 고객서비스 혁신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고객중심의 서비스 개선, 고객접점 직원의 CS역량 강화, 서비스 부진부문 집중개선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89.3점을 획득하였다.

### 나. 추진방향

- 고객중심의 서비스 개선
- 고객접점 직원의 고객응대서비스 역량 강화
- 서비스 부진부문 발굴 및 집중 개선활동 전개
- 고객의 소리(VOC)에 기반한 고객만족 추진

### 다. 고객만족 추진현황

- 고객감동스토리 공모 및 활용  
고객감동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의 의견 청취, 감동사례 홍보를 통한 임직원 긍정적 에너지 공유 및 대내외 이미지 제고
- CS리더 공감능력향상연수 실시  
CS활동을 영업점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영업점 CS리더(91명)를 대상으로 CS리더 공감능력워크숍을 실시하여 전사적인 고객만족경영의 매개체 역할 수행
- 청년인턴 CS 집합교육  
영업점 방문고객에 대한 고객만족도 제고코자 영업점 청년인턴(50명)을 대상으로 'Kibo CS매뉴얼 북'에 의한 기본예절, 전화응대요령 등 CS 집합교육 실시



## 03.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 ● CS클리닉 실시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부진한 영업점 및 자발적 신청 영업점을 대상(상반기 27개, 하반기 25개 영업점)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고객센터 개선

### ● CS광장을 통한 CS교육

CS 부진 부문 및 타 기관 CS사례 전파를 통한 고객접점 직원들의 고객중심 마인드 제고 및 CS 실천을 유도

### ● 고객의 소리를 직접 청취, 의견 반영코자 영업점장이 A/S Call 실시

영업점장이 직접 고객(689명)에게 전화 등을 통해 VOC 청취 및 서비스 개선에 활용

### ● FGI(집단심층토론 Focus Group Interview) 실시

기금의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 중 일부(경남 9명, 수도권 10명, 충청 10명)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고객 대면 방식을 통해 고객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

### ● 고객의 소리에 기반한 CS 추진

다양한 채널로 접수된 VOC를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여 고객만족 제도 개선에 반영

### ● CS 평가 및 보상

- 이달의 CS 빅히어로(고객만족 우수직원) 선정(12명)
- 분기별 고객감동 우수영업점 선정(2지점)
- 고객센터 우수 상담원 포상(3명)

### 라.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추이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체 고객만족도	89.1	88.1	88.1	88.7	88.6	90.5	94.0	94.2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89.7		89.9		88.3		89.3	

## 10 인권경영

### 가. 추진개요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선도 및 대외평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하였다.

### 나. 추진방향

-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인권경영 문화 확산
- 인권경영 정기적 점검을 통한 개선활동 전개

### 다. 인권경영 추진현황

#### ● 인권경영헌장 제정

- 내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자문을 통한 「인권경영헌장」 마련 및 경영전략워크숍을 통한 인권경영 정책선언

#### ● 인권경영 선포 및 임직원 실천서약 실시

- 인권정책선언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 및 전 직원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 서약 실시

#### ● 인권경영 이행기준 제정

- 임직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

#### ● 실무협의회 및 세미나

-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점검
- 인권위 NAP 컨퍼런스 참가

## 03.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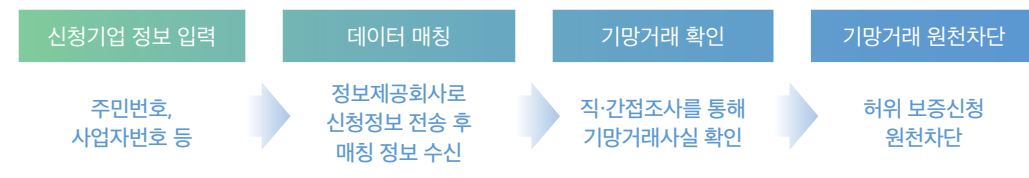
### 11 리스크관리

기금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보증자산위험관리 및 보증자산 유동성을 적정수준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에 기반한 목표리스크율을 설정하고 리스크 단계별 영업점 목표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정부정책과 기술금융지원 방향에 맞춘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으로 선제적 리스크관리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통합위험지표인 통합RCR 및 운용자산과 연계한 위기단계별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매뉴얼화하여 위기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연간 보증목표 초과달성에 불구하고 인수되는 리스크량은 목표 내로 방어함으로써 기술금융지원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하였다.

#### 사기·허위 보증신청 원천 차단을 위한 기망거래방지시스템(FWS)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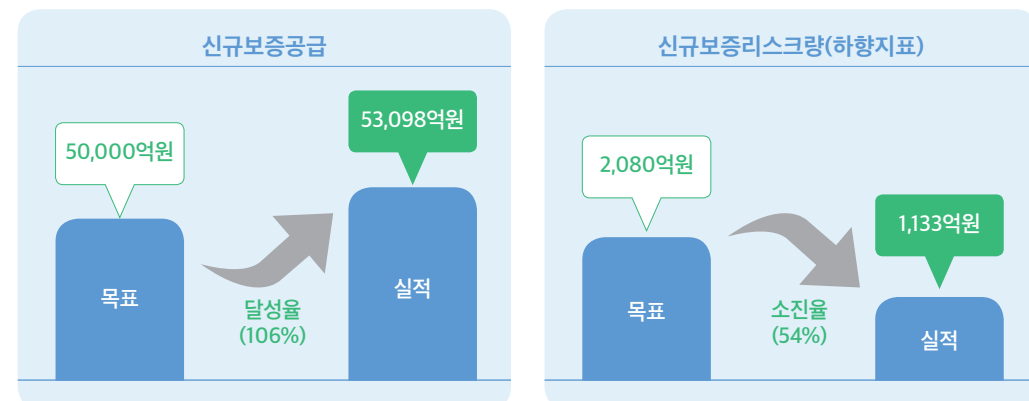
연대보증 전면면제 시행과 보증신청 급증 대비 제한된 인력으로 사기, 허위 지원신청 부실 검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허위사업자 정보, 파산 등 대표자 정보, 실시간 다중 대출정보 등 기망거래 확인정보를 통해 기망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보증자산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 기술금융지원의 내실화 제고를 위한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적 보증을 중점·핵심부문으로 선정하여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추진함으로써 보증목표를 효과적으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리스크 변동단계별 차등관리 및 전략적 포트폴리오 운용 등 단위 영업점별 리스크 개선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였다.

#### 기술금융정책과 조화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로 보증 및 리스크목표 초과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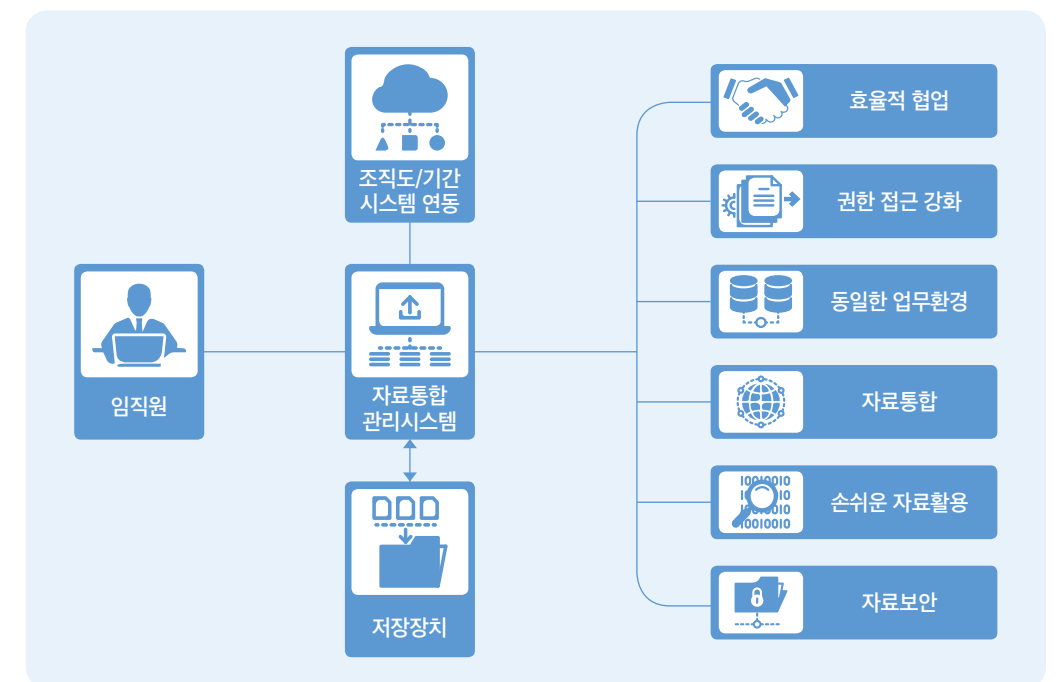


### 12 정보화업무

#### 가. 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를 개인 업무용PC에 보관하지 않고 중앙 서버에 보관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각종 자료를 중앙 서버에 보관하여 관리·활용함으로써 자료의 손쉬운 공유, 효율적 협업, 자료보안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 나. 전 영업점 네트워크장비 교체

영업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고성능 장치로 전면 교체하였다. 기존 장비보다 처리속도가 약 4.5배 빨라져 업무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원격으로 영업점 통신장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장애발생을 차단하는 등 통신망으로 인한 업무중단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 네트워크 장비(스위치장비)  
영업점 내 업무용PC 등을 연결하여 장비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

## 03.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 영업점 네트워크 장비 교체 전·후 비교

구분	교체 前	교체 後	개선효과
스위치 용량	32Gbps	176Gbps	통신속도 약 4.5배 향상
전원 이중화	단일전원 공급	이중전원 공급	안정적인 전원 공급
모니터링	장비상태 확인 불가	장비상태 확인 가능	사전 장애징후 파악 가능

### 다. 기술가치평가 협업시스템 구축

기존 오프라인(Off-line) 협업 방식으로 작성되던 '기술가치평가서'를 온라인(On-line)에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기술가치평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외부전문가와와의 협업으로 작성되는 기술가치평가서는 자료 취합 및 조정 등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 및 협업 시스템 제공으로 평가서 작성기간이 대폭 단축되었으며 평가서 품질이 향상되는 등 기업편의 향상에 기여하였다.

### 기술가치평가 협업시스템 구축 전후 비교

Process	도입 前	도입 後
평가신청	오프라인 신청 및 접수	신청 및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외부자문 평가의뢰	유선 또는 이메일 활용하여 평가의뢰 및 자료 제공	외부자문 평가의뢰부터 자료 제공, 평가위원 선정 까지 온라인 일괄처리
현장실사 일정통보	유선 또는 이메일 활용	평가위원 선정 완료 시 SMS, 이메일 실시간 자동 통보
평가서작성 및 제출	외부자문위원이 오프라인 작성 및 담당자에게 개별 제출	정형화된 폼으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작성 및 실시간 제출

### 라. 통합내부감사시스템 구축

감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행정과 리스크 기반 상시모니터링을 통합한 '통합내부감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감사 내부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리스크관리 시나리오 기반 감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규칙 위반 사전방지에 기여하였다.

### 마. 정보화업무 추진 성과

2016년 정보보안 강화 노력 및 체계적인 정보화 업무 추진 성과에 대해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하였다.

구분	주관	기금	비고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국가정보원	4위 (31개 기관)	전년 6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행정자치부	95.08 (100점 만점)	공공기관 평균 83.45
정보자원관리(EA) 성숙도 측정	행정자치부	4.06 (5.0 만점)	공공기관 평균 2.70

### 가. 개요

기보는 모든 임직원이 사회책임 의식을 공유하고 중소기업과 같은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을 지원함으로써 기보에 부과되는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 사회책임 경영을 통해 모범적인 금융 공기업의 모습을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사회공헌 활동의 목표로 삼고 있다.

### 나. 주요 실적

2016년은 기보의 설립 목적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였고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자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새롭게 추진하였다. 사회공헌활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하였으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참여자 수와 봉사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공헌 비 전	업(業)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공기업 구현		
추진방향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참여형 사회공헌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확대
중 점 실행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주기별 맞춤형 교육기부</li> <li>산학연계 프로그램 실시</li> <li>자유학기제 지원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 실시</li> <li>직원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li> <li>공공기관 협업 사회공헌 전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농 간 상생 확대(1사 3촌)</li> <li>지역 취약계층 직업교육 실시</li> <li>소외계층 문화체험행사 실시</li> </ul>



### 03.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청년기술창업교실 실시



감만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봉사활동



대학생 성공창업 준비를 위한 특강



본점 과학기술체험관 지역주민 개방

#### 다. 세부 추진실적

##### 기금의業과 연계한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활성화

구분	프로그램	세부 내용
창업준비	기보벤처창업교실	• 기술·아이디어 보유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기술창업 유도
창업초기	청년·기술창업교실	• 기술창업 준비 중인 청년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되는 실천교육 프로그램
	무료 자문·심사·평가 및 컨설팅	• 무료 기술자문·심사를 통한 기술창업 지원 • 경영애로 기업에 무료 기술경영컨설팅 실시
도약기	도약기업 CEO강좌	• 창업 후 3~5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전문강좌
재도전	재기기업인 전문강좌	• 재기지원기업 CEO의 기업운영에 필요한 실무 지식을 제공하는 재창업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 임직원 대상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참여형 사회공헌 활성화

프로그램	세부 내용
사회공헌 우수아이디어 공모	• 쉼 임직원의 사회공헌에 대한 책임의식 공유 • 제안된 우수아이디어의 채택을 통한 봉사활동 동기 부여



Kibo 걸음모아 사랑나눔 캠페인	• 스마트폰 기부 앱 빅워크(bigwalk)를 활용한 참여유도 • 임직원 스마트폰에 빅워크 앱 설치 후 목표 거리 달성 시 장애인 및 취약계층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후원
Kibo 연탄은행 사랑나눔 캠페인	• 기존 영업점 단위 봉사활동을 지역본부 단위로 확대 • 지역 단위 사회공헌활동 발굴을 통한 영업점 직원의 참여 유도
동호회 재능 기부형 봉사활동	• 기보 내 동호회 직원들의 '아우(Awoo)인형 만들기' 재능기부 • 노사공동 프로그램으로 1:1 매칭그랜트 방식 기부금 조성

##### 지역상생 및 소외계층 지원 사회공헌활동 확대

구분	프로그램	주요 추진내용
지역 사회 기여	1사 3촌(농촌) 상생우호교류 추진	• 농촌봉사활동 실시 • 해당 지역농산물 구입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기여 • 해당지역 독거노인, 저소득층 학생 정기후원
	장애인 및 취약계층 직업교육 실시	• 장애인·취약계층에 제과 제빵 직업교육 훈련 실시 (지역 복지관 협업)
	과학기술체험관 과학체험교실 운영	• 기보 직접운영 과학기술체험관 개방, 교육 실시 • 4D영상관, 로봇 시연 등 과학이해 프로그램
소외 계층 지원	오감만족(五感滿足) 문화체험 행사	•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과 기금 직원 간 공동행사 • 4D 영화, 공연 관람, 공원 트레킹 등 문화활동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봉사활동 실시	• 취약계층 노인 무료급식 • 치매어른 말벗, 한글교실 진행,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각종 성금 및 모금행사	•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각종 지원 행사 참여 - 사랑의열매, 적십자 바자회, 크리스마스 쉼, 국군위문성금, 대한적십자사, 어린이재단 정기후원 등



농촌 봉사활동 실시



노사공동 저소득층 아동 교복 및 신학기용품 후원

## 03.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 14 국제협력

기보는 해외 기술평가기관 등과의 폭넓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기관 간 인적교류와 정보 교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보 기술평가시스템(KTRS)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선진 금융기관들과의 기술금융 제도 교류 등을 통하여 기술금융의 글로벌화에 앞장서고 있다.

해외기관과의 교류와 함께 정부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베트남과 태국에 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 등을 전수하고 기술금융 역량강화에 노력함으로써 금융한류 형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WIPO Green, CTCN(Climate Technology Center & Network)과 같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이전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기보가 각국의 노력으로 구축해온 KTRS에 대해 해외기관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기관들이 KTRS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기보를 방문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보는 보다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기금의 KTRS가 세계 각지에서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인정받고 기보가 '기술금융의 Global Leader'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가. 주요성과



싱가포르 국가인구재능부(NPTD) 선임국무장관 방문



중관촌 지혜환경산업연맹 기금 방문



페루 FOGAPI(중소기업융자보증기금) 기금 연수 방문



네덜란드 경제부 차관과 기술혁신형기업 발전 방안 협의



베트남 NATIF(국가기술혁신기금)와 MOU 체결



일본정책금융공고(JFC)와의 지식교류 워크숍

### 나. 국제 교류 현황

#### 기금을 방문한 해외 유관기관

시기	기관명	교류 내용
3월	싱가포르 국가인구재능부	기금 일가정 양립 정책 소개 및 협의
4월	중국 중관촌 지혜환경산업연맹	기관 소개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6월	페루 FOGAPI(중소기업융자보증기금)	기술금융시스템 및 제도 소개
8월	태국 재무부	기술금융시스템 및 제도 소개
9월	네덜란드 RVO(네덜란드기업청)	기관 소개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9월	대만 SMEG(대만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	기술금융제도 워크숍
10월	태국 TCG(신용보증공사)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제도 소개
12월	일본 JFC(일본정책금융공고)	기술금융제도 워크숍

#### 기금의 국제회의의 참가 외

시기	회의명	교류 내용
1월	싱가포르 기업협회(SBF) 초청 컨벤션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4월	WIPO GREEN 기술이전 시범사업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이전 사업 추진
5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아시아 금융기관과의 교류 확대
6월	AECM 연차총회	유럽 보증기관 협의체 간 교류 확대
7월	제26차 ACSIC Training Program	아시아신용보증기관 실무자 회의
10월	IMF·WB 연차총회	세계 금융기관과의 교류 확대
10월	이베로아메리카 총회	라틴유럽 및 중남미 지역 보증기관 교류
11월	제29차 ACSIC 총회	아시아신용보증기관 교류 협력
11월	WIPO GREEN 연차총회	글로벌 기술이전 관련 기관 간 교류 확대







# 01

## 결산 재무제표

### 1. 2016년 요약 재정상태표

2016.12.31. 현재		단위: 백만원	
자산	금액	부채 및 순자산	금액
과목	금액	과목	금액
I. 유동자산	2,180,237	I. 유동부채	157,213
현금 및 현금성자산	11,004	선수수익	139,812
단기금융상품	996,638	기타	17,401
단기투자증권	1,107,844	II. 장기충당부채	989,733
기타유동자산 등	64,751	대위변제준비금	923,421
II. 투자자산	625,953	유동화보증대위변제준비금	40,199
장기금융상품	101,000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26,113
장기투자증권	326,713	III. 기타비유동부채	1,483
기타투자자산 등	198,240	부채총계	1,148,429
III. 일반유형자산	133,290		
토지	42,924	I. 기본순자산	10,360,891
건물	83,655	설립 시 기본재산	21,768
기계장치	2,903	출연금	10,339,123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	3,808	II. 적립금 및 잉여금	(8,240,981)
IV. 무형자산	3,421	전기이월잉여금	(8,161,404)
산업재산권 등	3,421	기타순자산의 증감	80,000
V. 기타비유동자산	407,865	당기재정운영결과	(159,577)
구상채권	337,211	III. 순자산조정	82,427
보전채권	236	투자자산평가손익 등	82,427
보증금 등	70,418	순자산총계	2,202,337
자산총계	3,350,766	부채와 순자산 합계	3,350,766

### 2. 2016년 요약 재정운영표

2016.1.1. ~ 2016.12.31.				단위: 백만원
과목	금액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	925,190	(282,193)	642,997	
산업금융지원	925,190	(282,193)	642,997	
II. 관리운영비			49,012	
인건비			24,489	
경비 등			24,523	
III. 비배분비용			53,357	
자산감액손실 등			53,357	
IV. 비배분수익			65,017	
이자수익 등			65,017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680,349	
VI. 비교환수익 등			520,772	
부담금수익			478,375	
기타재원조달 및 이전			42,397	
재정운영결과(= V - VI)			159,577	

### 3. 2016년 요약 순자산변동표

2016.1.1. ~ 2016.12.31.					단위: 백만원
과목	금액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I. 기초순자산	10,360,891	(8,161,404)	95,610	2,295,097	
보고금액	10,360,891	(8,161,404)	95,610	2,295,097	
II. 재정운영결과	-	159,577	-	159,577	
III. 조정항목	-	80,000	(13,183)	66,817	
투자증권평가손익	-	-	(14,607)	(14,607)	
자산재평가이익	-	-	1,424	1,424	
기타순자산의증감	-	80,000	-	80,000	
IV. 기말순자산( I - II + III)	10,360,891	(8,240,981)	82,427	2,202,337	

## 02

## 상임이사/비상임이사

상임이사  
Executive Director

| 곽영철 이사 |

| 박기표 이사 |

| 강낙규 전무이사 |

| 김규옥 이사장 |



| 최성수 감사 |

| 황대현 이사 |

| 유기현 이사 |

비상임이사  
Non - Executive Director김만두  
비상임이사이종우  
비상임이사배병일  
비상임이사이기우  
비상임이사김태영  
비상임이사이대식  
비상임이사이지언  
비상임이사

# 03 운영위원

기 술 보 증 기 금 운 영 위 원 명 단					
*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술보증기금법 제17조 2016.12.					
구분		운영위원			비고
위원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지명 위원 (5명)	금융위원회 지명(1명)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도규상	
	기획재정부장관 지명(1명)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방기선	
	중소기업청장 지명(1명)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	이상훈	
	중소기업은행장 지명(1명)	중소기업은행	전무이사	박춘홍	
	국민은행장 지명(1명)	국민은행	전무	이용덕	
위촉 위원 (7명)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3명)	신한은행	부행장	최병화	
		우리은행	부행장	채우석	
		하나은행	부행장	윤규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촉(1명)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위촉(1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송재희	
	기술관련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2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	김이환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원장		공석

# 04 주요일지

일자	주요내용
1월 26일	제1차 경영전략워크숍 개최
1월 27일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시행
2월 17일	노사 공동, 저소득층 학생 후원
3월 03일	기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3월 08일	제1회 기술신용평가사 3급 시험 실시
3월 14일	오산지점 개점
3월 21일	제1회 청년기술창업교실 개최
4월 01일	창립 27주년 기념식
4월 08일	기보, KIC-Europe과 기술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5월 17일	판교지점 개점
5월 24일	미래사업추진단 출범
5월 30일	기보, K-Star 벤처기업 8곳 선정
6월 01일	우수 문화콘텐츠기업에 총 3,200억원 지원
6월 24일	기보, 부산시와 One-Stop 협약보증 1,000억원 지원
7월 05일	기보-캠코, 위기 중소기업 지원 협약
7월 19일	경기기술융합센터, 광주기술융합센터 신설
7월 26일	제2차 경영전략워크숍 개최
8월 19일	금융기관 최초 CTCN 전문기관 승인
8월 25일	제주지점 개점
8월 31일	베트남 과기부 공무원에 기술금융 기법 전수
9월 30일	'기술보증기금'으로 법률상 기관 명칭 변경
10월 25일	기술금융 확대로 '대통령표창' 수상
11월 11일	기술평가 세미나 개최
12월 01일	신입직원 40명 채용
12월 08일	KIC 쉐센터와 기술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약
12월 15일	아프리카에 국내 기후기술 이전
12월 19일	일본정책금융공고(JFC)와 업무협약 체결



05

영업점 현황

구분	주소	대표전화
경기영업본부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19, 국민연금 수원사옥 6층	031)8006-1500
서울영업본부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63빌딩 41층	02)3215-5900
부산영업본부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7층	051)606-7433
인천영업본부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323, 송도센트로드 B동 10층	032)830-5600
충청영업본부	대전 서구 둔산대로 141, 2층	042)610-2231
호남영업본부	광주 서구 죽봉대로 80, 무등산타워 6층	062)360-4662
대구영업본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053)251-5600
중앙기술평가원	서울 서초구 매향로 16, 하이브랜드빌딩(리빙관-11층)	02)2155-3753
가산기술평가센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에스티엑스브이타워 1906호	02)818-4300
강남기술평가센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8, 동우빌딩 5층	02)2016-1300
강릉기술평가센터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0, 동아빌딩 8층	033)640-8700
경산기술평가센터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053)859-9000
광주기술평가센터	광주 서구 죽봉대로 80, 무등산타워 6층	062)360-4600
광주서기술평가센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0, 기업은행 3층	062)970-9200
구로기술평가센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05, JNK디지털타워 1801호~ 1807호	02)6124-6400
구미기술평가센터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24, 기업은행 3층	054)440-0730
김포기술평가센터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3, 신한프라자 8층 805호	031)980-8600
김해기술평가센터	경남 김해시 내외중앙로 55, 기업은행 4층	055)330-2100
녹산기술평가센터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20, 하나은행 3층	051)970-0600
대구기술평가센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053)251-5600
대구북기술평가센터	대구 북구 원대로 130, 화성빌딩 5층	053)350-9500
대구서기술평가센터	대구 달서구 용산로 141, 그랜드M타워 12층	053)550-1400
대전기술평가센터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기보빌딩 1층	042)610-2201
대전동기술평가센터	대전 중구 대종로 540, 유안타증권 2층	042)250-0700
동래기술평가센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25, 금정타워 10층	051)510-6900
마산기술평가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23, 기업은행 2층	055)249-9799
목포기술평가센터	전남 목포시 옥암로 25, 기업은행 2층	061)288-1500
부산기술평가센터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보빌딩 3층	051)606-7686
부천기술평가센터	경기 부천시 소항로 217, NH농협은행 4층	032)620-8800
부평기술평가센터	인천 부평구 부흥로 353, 중소기업은행 2층	032)509-1700
사상기술평가센터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71, 하나은행 2층	051)320-3400
사하기술평가센터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336, 시우스빌딩 3층	051)250-7808
서울기술평가센터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63빌딩 41층	02)3215-5900
서초기술평가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181, 단우빌딩 4층	02)2224-3100
성남기술평가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84-3, 가온미디어 6층	031)750-4800
송파기술평가센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아이티벤처타워 동관 601호	02)3400-7900
수원기술평가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19, 국민연금공단 6층	031)8006-1500

구분	주소	대표전화
순천기술평가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52, 기업은행 6층	061)729-9333
시화기술평가센터	경기 시흥시 옥구공원로 361, KT&G 안산지사 3층	031)496-5911
아산기술평가센터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5, 장호빌딩 3층	041)538-5900
안산기술평가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교보빌딩 9층	031)8084-5300
안양기술평가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82, 건강보험빌딩 2층	031)450-1600
양산기술평가센터	경남 양산시 중앙로 216, 기업은행 3층	055)370-4700
용인기술평가센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49, 2층	031)8020-4000
울산기술평가센터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2층	052)220-7900
원주기술평가센터	강원 원주시 원일로 115, NH농협은행 3층	033)730-8300
의정부기술평가센터	경기 의정부시 의정로 44, 석천빌딩 4층	031)820-0300
익산기술평가센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7층	063)840-3100
인천기술평가센터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 B동 10층	032)830-5600
인천중앙기술평가센터	인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30, 기보빌딩 1층	032)420-3500
일산기술평가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엠시티타워 15층	031)931-7200
전주기술평가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전북은행 11층	063)270-9800
종로기술평가센터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대우빌딩 복합동 2층	02)2280-4800
진주기술평가센터	경남 진주시 대신로 310, 기업은행 4층	055)750-1111
창원기술평가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38, 기업은행 3층	055)210-4099
천안기술평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지원센터 802호	041)629-5913
청주기술평가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인템프라자 6층	043)290-9513
춘천기술평가센터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5층	033)240-2800
충주기술평가센터	충북 충주시 애향로 10, 현대자동차 3층	043)849-8600
평택기술평가센터	경기 평택시 평택1로 48, 비전프라자 3층	031)659-8700
포항기술평가센터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69, 기업은행 3층	054)271-4900
화성기술평가센터	경기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934-4, 우리들유통타운 C동 207호	031)299-8200
광주기술융합센터	광주 서구 죽봉대로 80, 무등산타워 6층	062)360-4654
경기기술융합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19, 6층	031)8006-1581
대구기술융합센터	대구 달서구 용산로 141, 그랜드M타워 12층	053)550-1450
대전기술융합센터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141, 3층	042)610-2279
부산기술융합센터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3층	051)606-7327
서울기술융합센터	서울 서초구 매향로 16, 하이브랜드빌딩(리빙관-11층)	02)2155-3652
익산기술평가센터 군산영업소	전북 군산시 대학로 35, 교보빌딩 2층	063)460-2840
청주기술평가센터 오창영업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충북테크노파크 미래융합관 310호	043)251-1503
수원기술평가센터 오산영업소	경기 오산시 성호대로 84, 씨티은행 2층	031)369-5505
성남기술평가센터 판교영업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한국반도체산업협회 2층	031)725-7805
광주기술평가센터 제주영업소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064)727-0271



#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지난 28년간, KIBO는 불모지와 다름없던  
기술금융 시장에 희망의 씨를 뿌리고  
'기술평가'라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며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꾸준히 정립해 왔습니다.

KIBO는 동북아 금융 허브 시대를 견인하는  
금융공기업으로 기술금융의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